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첫 번째 목적은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멘티(아동)와 멘토(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임.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 멘토링활동이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특히, 진로 · 자원봉사영역)' 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 보호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상호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청소년시설 및 단체와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6곳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내용

-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운영(전국 6개 청소년시설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도시지역 3곳, 농촌지역 3곳 포함)
- 멘티(아동), 멘토(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
-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세부보고서)

3. 연구결과

- 멘티(아동)와 비교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 사후 효과성 검증 결과, 멘토링활동 이후 절망감, 외로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 학교 연계 등 7개 항목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성별, 지역별 분석에서 남자아동과 농산촌지역 멘티의 경우 '외로움' 항목에서 비교집단과 차이를 보임.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 멘티는 멘토링활동 이후 비교집단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줄었으나, 처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 멘토링활동 이후 비교집단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국 멘토링이 멘티의 외로움이라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 정도가 큰 아동의 경우 섣부른 개입과 종결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그러나, 멘티를 대상으로 멘토링활동 이후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의 변화를 8개의 진술문으로 질문한 결과 8개 항목 모두에서 긍정(매우 포함)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멘토링 효과성에 대한 멘티의 주관적인 판단은 종속변수(멘토링 효과)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멘티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실제 멘토링활동 효과와 관련 있음이 입증됨

- 멘티의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 '멘토 원조에 대한 멘티 만족도' 의 경우 멘토링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멘토링 빈도' 와 '1회 평균 멘토링 시간' 은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멘토링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남 횟수와 시간과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는 멘토의 진정성과 같이 '멘토링관계' 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관계적 요인과 멘티의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함

- 멘토(청소년)와 비교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 사후 효과성 검증 결과, 멘토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멘토링활동 이후 멘토링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5개 종속변수 가운데 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삶의 충만감, 친사회적 참여 등 8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됨

- 단, 멘토의 사전검사점수가 낮고 높음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 정도에 차이가 관찰됨. 사전검사점수가 낮은 멘토는 비교집단에 비해 오히려 사후검사점수가 낮았고, 중간정도(3-4점)에 이르면 두 집단의 사후검사점수는 동일해지며,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멘토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점수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멘토링활동 이전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멘토링활동을 통해 자신의 좋은 특성을 더욱 개발하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멘토링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멘토의 학교급별 분석 결과 멘토링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중학생의 경우 '긍정적 인정' 의 경우에만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고등학생은 사전검사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멘토링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음. 반면, 대학생의 경우 멘토링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 대부분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멘토의 연령에 따라 멘토링의 내용과 형식에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임

- 멘토를 대상으로 멘토링활동 이후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의 변화를 8개의 진술문으로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매우 포함)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감사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자원봉사 및 기부에 대한 관심' 의 경우 10명 중 8명 정도가 긍정 응답을 보이는 등 인식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짐. 또한, 멘토의 주관적인 효과성에 대한 판단은 멘토링 효과성에 대한 종속 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멘티와 마찬가지로 멘토의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실제 멘토링활동 효과와 관련 있음이 입증됨

- 멘토의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멘토링활동을 통해 '멘토로서의 자질' 을 갖추거나 학습한 경우 사회적 유능감을 포함하여 멘토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5개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다음으로, 멘티가 멘토와의 약속을 잘 지키거나 마음속 이야기를 멘토에게 이야기 하는 등 멘토가 멘티의 태도를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멘토에게 긍정적인 멘토링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이 외 멘토교육에서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육 이수 시간이 많을수록 멘토의 '효능감' 이 유의하게 향상된 만큼 멘토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됨. 반면, 이전에 멘토로서의 경험은 멘토링활동 효과와 관계를 보이는 정도가 제한적이었으며, 1회 평균 멘토링 시간과 빈도 역시 멘토링 효과와는 관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멘토교육과 멘티, 멘토 선발 과정 및 풀(pool) 구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멘토교육 및 수퍼비전 강화, 활동 내용과 기록 관리 방법 개선 등 운영기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4. 제언

- 시범사업 기간이 3개월로 제한적인 만큼, 후속사업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멘토링활동 운영과 효과 측정이 요구됨. 또한, 멘토 교육과 멘티, 멘토의 선발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멘토의 경우 멘토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인 수퍼비전이, 멘티의 경우에도 멘토링에 대한 이해와 약속지키기 등 기본적인 교육이 제공될 때 멘토링의 '상호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중·고등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링활동의 경우 멘티, 멘토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 즉, 중학생의 경우 멘토로서의 역할 실행보다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일환으로 멘토링의 이해와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두고 예비 또래멘토를 양성하는 데 비중을 둘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생은 구조화된 멘토

링 활동 내용 속에서 교육과 수퍼비전을 강화하여 멘토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해야 함. 또한, 멘토 자질을 갖춘 예비 멘토를 발굴하여 멘토링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학생은 중 · 고등학생과 달리 뚜렷한 멘토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멘토링 참여 독려가 요구됨

- 일반적으로 정해진 매칭(결연) 방법은 없지만, 외로움의 정도가 큰 아동의 경우 멘토링 종결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멘토와의 매칭과 종결 단계에서 특히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 멘티, 멘토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멘토링 효과성은 이 연구에서 멘토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종속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됨. 후속연구에서는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멘토링 효과와 관련있는 주요 변인들의 재검토를 거쳐 멘토링활동 효과성 측정도구를 보다 간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기관의 역량에 따라 활동 효과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운영기관의 영향 요인을 고려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보급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목차 | CONTENTS

I.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개요 12
1. 필요성 및 목적 14
2.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주요일정 15

II.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측정 설계 20
1. 연구설계 22
2. 자료수집 방법 22

III.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측정 도구 26
1. 멘티 28
1) 독립변수 28
2) 종속변수 32
3) 통제변수 40
2. 멘토 41
1) 독립변수 41
2) 종속변수 46
3) 통제변수 56
3. 분석방법 56

Ⅳ.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 58
1. 멘티 ····· 60
1) 멘티와 비교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0
2) 멘티와 비교집단 차이검증(전체) ····· 61
3) 멘티와 비교집단 차이검증(성별 분석) ····· 62
4) 멘티와 비교집단 차이검증(도 · 농별 분석) ····· 65
5) 멘티의 주관적인 멘토링 효과 ····· 68
6) 멘티에 대한 멘토링 효과성 관련 요인 ····· 70
2. 멘토 ····· 72
1) 멘토와 비교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72
2)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전체) ····· 72
3)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성별 분석) ····· 76
4)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도 · 농별 분석) ····· 83
5)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학교급 간 분석) ····· 91
6) 멘토의 주관적인 멘토링 효과 ····· 99
7) 멘토에 대한 멘토링 효과성 관련 요인 ····· 101

Ⅴ. 결론 및 제언 ····· 104
1. 요약 및 결론 ····· 106
2. 제언 ····· 113

참 고 문 헌 ····· 118

표 목차

〈표 Ⅰ-1〉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 ····· 16
〈표 Ⅲ-1〉 멘티 종속변수 및 측정 ····· 39
〈표 Ⅲ-2〉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척도 ····· 55
〈표 Ⅳ-1〉 멘티와 비교집단의 특성 ····· 60
〈표 Ⅳ-2〉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 (전체) ····· 61
〈표 Ⅳ-3〉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 (여아) ····· 62
〈표 Ⅳ-4〉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 (남아) ····· 64
〈표 Ⅳ-5〉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의 외로움 (남아) ····· 64
〈표 Ⅳ-6〉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 (도시) ····· 66
〈표 Ⅳ-7〉 공분산 분석결과: 멘티, 비교집단 (농촌) ····· 67
〈표 Ⅳ-8〉 공분산 분석결과: 멘티, 비교집단의 외로움 (농촌) ····· 67
〈표 Ⅳ-9〉 멘티의 주관적인 판단과 사후검사점수의 관련성 ····· 70
〈표 Ⅳ-10〉 효과적인 멘토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멘티차원 ····· 71
〈표 Ⅳ-11〉 멘토와 비교집단의 특성 ····· 72
〈표 Ⅳ-12〉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 (전체) ····· 74
〈표 Ⅳ-13〉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 (여학생) ····· 78
〈표 Ⅳ-14〉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 (남학생) ····· 81
〈표 Ⅳ-15〉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 (도시) ····· 85
〈표 Ⅳ-16〉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 (농촌) ····· 89
〈표 Ⅳ-17〉 공분산 분석 결과: 중학생 멘토, 비교집단 ····· 92
〈표 Ⅳ-18〉 공분산 분석 결과: 고등학생 멘토, 비교집단 ····· 94
〈표 Ⅳ-19〉 공분산 분석 결과: 대학생 멘토, 비교집단 ····· 96
〈표 Ⅳ-20〉 멘토의 주관적인 판단과 사후검사점수의 관련성 ····· 101
〈표 Ⅳ-21〉 효과적인 멘토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멘토차원 ····· 102
〈표 Ⅴ-1〉 청소년 멘토링활동 참여 모델 ····· 113

그림 목차

[그림 Ⅰ-1]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인적구성 모형 ····· 17
[그림 Ⅰ-2]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주요일정 ····· 18
[그림 Ⅱ-1] 멘토링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 23
[그림 Ⅱ-2] 멘티의 멘토링 효과 측정 설계 ····· 24
[그림 Ⅱ-3] 멘토의 멘토링 효과 측정 설계 ····· 24
[그림 Ⅳ-1] 외로움 사전·사후검사의 관계 (남아)····· 65
[그림 Ⅳ-2] 외로움 사전·사후검사의 관계 (농촌)····· 68
[그림 Ⅳ-3] 멘토링 효과성에 대한 멘티의 주관적 판단 ····· 69
[그림 Ⅳ-4]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 (전체) ····· 76
[그림 Ⅳ-5]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 (여학생) ····· 80
[그림 Ⅳ-6]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 (남학생) ····· 82
[그림 Ⅳ-7]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 (도시)····· 88
[그림 Ⅳ-8]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농촌) ····· 90
[그림 Ⅳ-9]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중학생 (긍정적 행동 인정) ····· 91
[그림 Ⅳ-10]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고등학생 멘토, 비교집단 ····· 95
[그림 Ⅳ-11]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대학생 멘토, 비교집단 ····· 99
[그림 Ⅳ-12] 멘토링 효과성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 판단 ····· 100

Ⅰ.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2.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주요일정

I.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멘토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lue, 2004). 그러나, 멘토링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국에서조차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졌으며, 모든 멘토링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Foster ; 2000 ; Dubois., et al., 2002 ; Jekielek, Moore, Hair and Scarupa,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나이가 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또래멘토링**(Cross-age peer mentoring)' 에 대한 시도 역시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 또래멘토링과 기존 멘토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간 멘티(mentee)에 머물러 있던 청소년이 멘토(mentor)로 그 역할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멘토링이 멘티뿐 아니라 멘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멘토링의 양자효과(double impact)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은 아동기 발달과정상의 위기와 과업들을 비교적 최근에 경험하였고 아동・청소년의 또래친화력을 감안할 때 성인 멘토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멘토가 필요한 아동 멘티의 수에 비해 성인 멘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같은 지역의 '동생' 을 돌보는 또래멘토링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기반이 되고 있다.

멘토링은 일회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를 기반으로 하고, 사회기술(social skills)을 포함하여 멘토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을 강조하는 만큼 청소년에게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멘토가 되는 멘토링에서도 청소년(멘토)과 아동(멘티)의 '관계' 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이며 멘토링을 통한 긍정적인 발달 산물은 멘티, 멘토의 상호적인 발달관계(mutually beneficial development relationship)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Garringer and MacRae, 2008: 2).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Karcher, 2007).[1] 특히, 멘티인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만을 측정하거나 중・고등학생 멘토에게 미치는 멘토링의 효과 측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멘티뿐 아니라 중・고・대학생 멘토에게 미치는 멘토링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는 성별, 도・

1) 청소년이 멘토로 참여하는 만큼 기존의 멘토링과 구분하기 위하여 '또래멘토링'으로 기술하였으나 편의상 '멘토링활동' 과 혼용하였다.

농별, 멘토의 경우 학교급간 분석을 포함하였다.

멘토링활동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 · 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멘토링은 상담, 튜터링과 같이 문제해결이나 성적 향상과 같이 특정한 목표보다는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에 목표를 두는 만큼 대다수의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광범위한 발달을 측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 또래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에서 효과성 분석의 일환으로 측정도구를 사용한 양적분석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2] 1차년인 올해의 연구 목적은 멘토링이 멘티, 멘토에게 미치는 효과와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2차년인 내년도의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주요일정

1) 시범사업 운영기관 선정단계

시범사업 운영 모델은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 멘토의 연령에 따라 중·고·대학생으로 학교 급을 구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와 농·산·어촌(이하, 농촌)으로 구분하여 총 6개 모델로 운영하였다. 시범사업의 목적에 따라 신청자격은「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시설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로 제한하였으며,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기관 가운데 프로그램 계획서를 포함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운영기관 및 멘티, 멘토기관으로 참여한 기관 현황은 아래 〈표 Ⅰ-1〉과 같다.

2)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은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Ⅰ' 의 일환으로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시범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괄보고서에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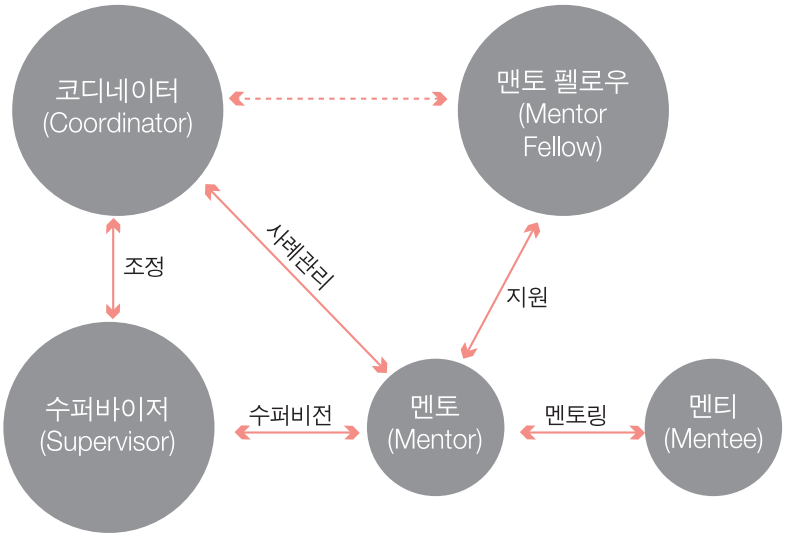
〈표 Ⅰ-1〉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운영 기관 현황

연번	운영기관 (가나다순)	청소년 멘토	지역	멘티기관 멘토기관	운영 모델
1	대구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중학생	(대) 도시	대명지역아동센터 경일여자중학교	도시지역 중학생
2	대전광역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고등학생		보문지역아동센터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도시지역 고교생
3	서울시립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대학생		꿈의학교 · 신당꿈 · 지역아동센터 · 노량진행복한홈스쿨 건국대 외 9개 대학교	도시지역 대학생
4	박달재수련원	중학생	농산 어촌	도화늘푸른지역아동센터 백운중학교	농촌지역 중학생
5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고등학생		기안 · 봉담지역아동센터 봉담고등학교	농촌지역 고교생
6	한국BBS 경상북도연맹	대학생		우리아이지역아동센터 경북전문대학	농촌지역 대학생

주 : 사업비는 각 기관별로 1천 만원 이내이며 예산 지원 범위는 멘토링활동비, 결연관리자 인건비, 멘티·멘토 교육경비 등 사업비를 포함하였음.

시범사업 운영 기관 선정 시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멘티, 멘토 기관과의 연계 정도를 고려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1인의 결연관리자(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시범사업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멘토의 연령과 인프라 등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활용 내용은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멘토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실시하기, 멘티와 멘토의 면대면 만남은 최소 10회기 이상 유지하기, 수퍼바이저를 두고 수퍼비전 제공하기, 멘티와 멘토의 부모 및 교사를 멘토 펠로우(fellow)로 활용하기 등을 운영상의 공통사항으로 하였다.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인적 구성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Ⅰ-1]이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범사업 운영기관 실무자 및 결연관리자를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실시(2010. 5. 27)하였으며, 각 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지침(초안)' 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멘토링 운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멘토링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멘티, 멘토와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Ⅰ-1]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인적구성 모형

출처: 김지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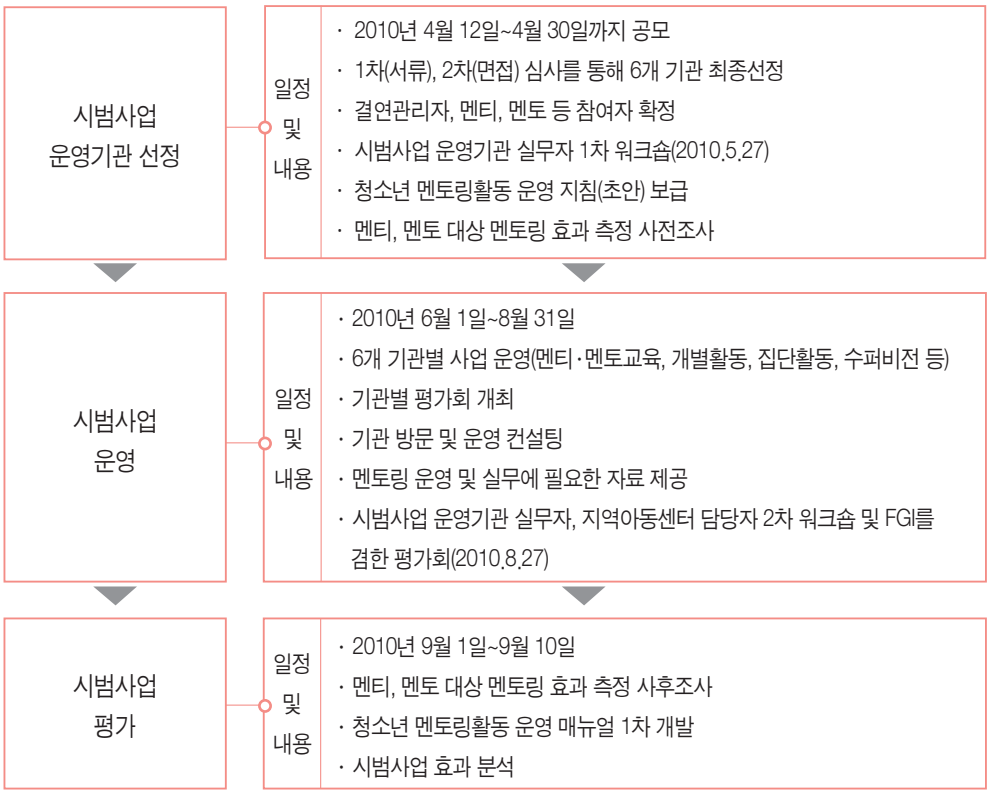
2) 시범사업 운영단계

실제적인 시범사업 운영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었다. 각 기관별로 개별활동, 집단활동, 멘티·멘토교육, 수퍼비전, 멘토링활동 평가회 등을 운영하였다. 사업 운영 단계에서 연구자는 기관 방문 및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시범사업 종결에 앞서 시범사업 운영 담당자와 결연관리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회를 겸한 2차 워크숍을 실시(2010. 8. 27)하였다. 이 과정에서 멘토링활동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담당자, 결연관리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면접을 함께 진행하였다.[3)]

3) 멘토링 효과 측정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외에 참여관찰, 집단면접(F.G.I.)과 활동일지 등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과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에 기술하였다.

3) 시범사업 평가단계

멘티, 멘토 및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효과 측정을 위한 주요 연구 일정을 정리하면 [그림 Ⅰ-2]와 같다.



[그림 Ⅰ-2]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 주요일정

Ⅱ.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측정 설계

1. 연구설계
2. 자료수집 방법

Ⅱ.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측정 설계

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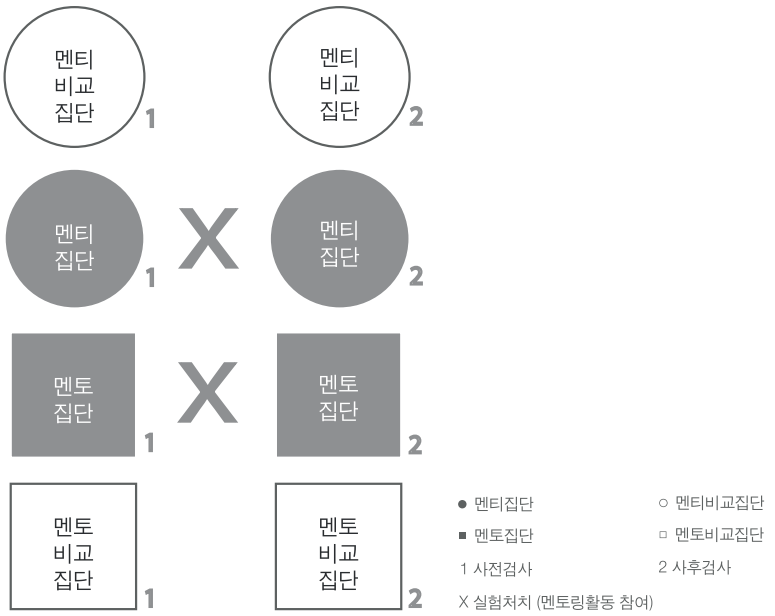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멘티, 멘토와 비교집단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무작위할당에 기초한 순수실험설계가 아닌 유사실험설계인 비동일통제집단비교설계(Nonequ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하였다. 특히, 멘티 뿐 아니라 멘토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교집단을 포함하여 [그림 II-1]과 같이 총 네 개의 집단을 연구설계에 포함하였다.[4] 멘티, 멘토에 대한 효과 측정 설계를 각각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I-2], [그림 II-3]이다.

2. 자료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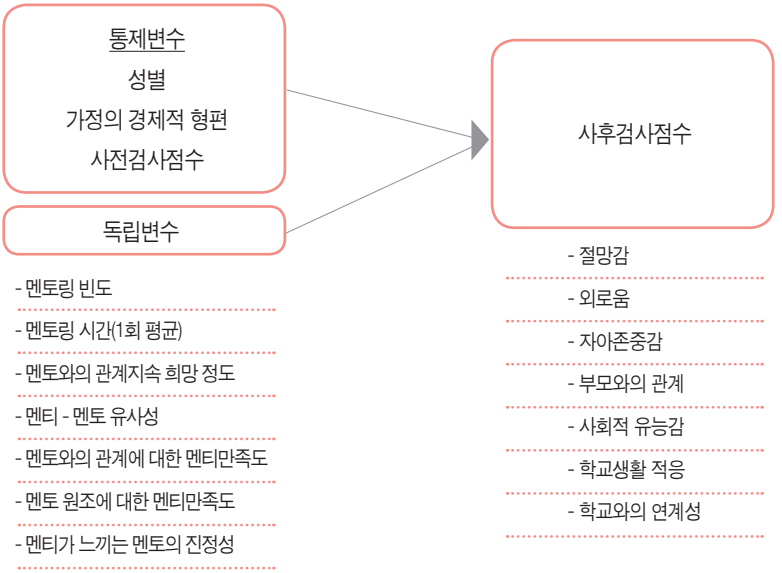
멘티와 멘토, 그리고 각각의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전 -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멘티, 멘토에 대한 멘토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전조사는 2010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멘티, 멘토 가운데 사전조사 기간 중 측정에 참여한 멘티 118명, 멘티 비교집단 91명, 멘토 132명, 멘토 비교집단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사전조사를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프로그램 중간에 투입된 경우, 사전조사는 마쳤으나 중간에 탈락한 경우는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여 멘티 113명, 비교집단 86명, 멘토 127명, 비교집단 110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5]

4) 실험처치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참여 의사를 가진 사람을 실제 참여자보다 많은 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 가운데 일부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윤리적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제 연구모형에 무작위할당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실험집단의 구성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여 비교집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제집단(control group)이라는 용어 대신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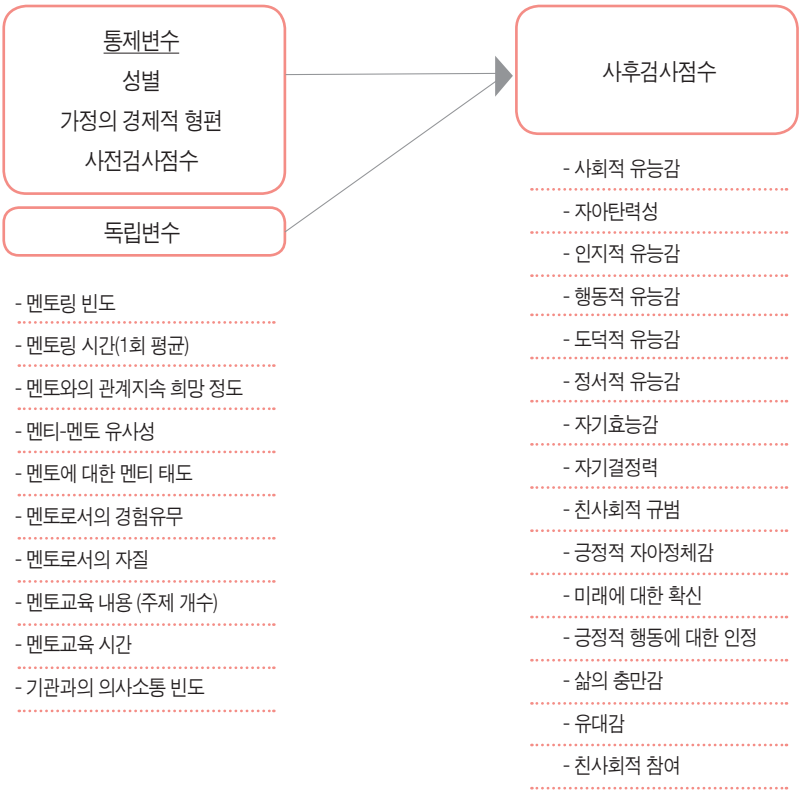
5) 사전조사는 마쳤으나 이사, 개인사정 등으로 중간에 5명이 탈락하였고 대체 참여를 희망하여 같은 인원을 투입하였다.



[그림 II-1] 멘토링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그림 II-2] 멘티의 멘토링 효과 측정 설계



[그림 II-3] 멘토의 멘토링 효과 측정 설계

Ⅲ.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측정 도구

1. 멘티
2. 멘토
3. 분석방법

Ⅲ.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측정 도구

1. 멘티

1) 독립변수[6]

(1) 멘토링 빈도

멘토링 빈도는 멘티와 멘토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를 의미한다. 참여관찰을 통해 사후검사 시 응답범주를 여섯 개로 구분하였다.

여러분은 지난 3달 동안 얼마나 자주 멘토를 만났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① 두세 달에 1번 이하
☐ ② 한 달에 1번 정도
☐ ③ 한 달에 2-3번 정도
☐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6) 총 7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사에서 멘티에 의해 보고된 것이다.

(2) 1회 평균 멘토링 시간

이 변수의 값은 최소 1점(30분 이하)부터 30분 단위를 기준으로 1점씩 값이 증가하여 최대 9점(4시간 30분 이상)까지의 범위로 구분하였다.

여러분이 멘토를 만나게 되면 보통 얼마나 같이 있었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① 30분 이하
☐ ② 1시간 정도
☐ ③ 1시간 30분 정도
☐ ④ 2시간 정도
☐ ⑤ 2시간 30분 정도
☐ ⑥ 3시간 정도
☐ ⑦ 3시간 30분 정도
☐ ⑧ 4시간 정도
☐ ⑨ 4시간 30분 이상

(3) 멘토와의 관계지속 희망 정도

사후검사에서 멘티에게 향후 멘토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희망하는지를 질문하였다. ①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부터 ⑥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까지 6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여러분은 지금의 멘토를 계속해서 만나기를 얼마나 바라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①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 ②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 ③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
☐ ④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
☐ ⑤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

(4) 멘티 - 멘토 유사성

성격, 장래희망, 좋아하는 활동 등 8가지 분야에 있어서 멘티가 자신이 멘토와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는지를 ① 매우 다르다부터 ④ 매우 비슷하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소연(2010)이 개발한 변수로 8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 연구표본에서의 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여러분과 멘토는 얼마나 비슷한가요?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 해주세요.	매우 다르다	다른 편이다	비슷한 편이다	매우 비슷하다
(1) 멘토와 나의 성격은	1	2	3	4
(2) 멘토와 나의 장래희망은	1	2	3	4
(3) 멘토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1	2	3	4
(4) 멘토와 내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1	2	3	4
(5) 멘토와 나의 종교는	1	2	3	4
(6) 멘토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1	2	3	4
(7) 멘토와 나의 옷 입는 스타일은	1	2	3	4
(8) 멘토와 나의 대화 스타일은	1	2	3	4

(5) 멘토와의 관계에 대한 멘티 만족도

멘토와의 관계에 대한 멘티 만족도는 Rhodes와 그의 동료들(2005)이 청소년 멘토링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가운데 '만족감(Not Unhappy)' 의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hodes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의 Big Brothers Big Sisters(BBBS) 멘토링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347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역문항 처리를 통해 큰 값을 가질수록 멘토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개발자가 보고한 신뢰도는 .85이며 이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신뢰도가 적정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멘토에 대한 생각이나 바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멘토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나는 내가 무척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2) 나는 멘토가 나에 대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1	2	3	4
(3) 나는 멘토가 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	1	2	3	4
(4) 나는 멘토가 나의 생각을 더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	1	2	3	4
(5) 내가 멘토에게 비밀을 털어 놓으면 멘토는 우리 엄마나 선생님께 말해버릴 것 같다.*	1	2	3	4
(6) 나는 나의 멘토가 달라지기를 바란 적이 있다.*	1	2	3	4
(7) 나는 멘토와 함께 있으면 무시 받는 기분이다.*	1	2	3	4
(8) 나는 멘토와 함께 있으면 지루하다.*	1	2	3	4
(9) 나는 멘토와 함께 있으면 미칠 것 같다.*	1	2	3	4
(10) 나는 멘토와 함께 있으면 왠지 실망스럽다.*	1	2	3	4

*역문항

(6) 멘토 원조에 대한 멘티 만족도

멘토의 원조에 대한 멘티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 역시 멘토링 관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Rhodes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척도(Rhodes 외, 2005)의 4개 하위차원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였다. Rhodes와 동료연구자들에 의해 'Helped to cope' 라고 명명된 이 하위척도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에서 이 하위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 값은 .81이며 이 연구에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86이었다. 분석 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멘토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멘토가 보인 태도와 가장 비슷한 곳에 ∨표 해주세요.	거의 한번도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내가 짜증이 났을 때, 멘토는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	1	2	3	4
(2) 멘토는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잘 생각해 낸다.	1	2	3	4
(3) 멘토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준다.	1	2	3	4

(7)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멘토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다', '멘토는 나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한다' 등 멘티에 대한 멘토의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에 대한 5개의 진술문을 사용하였다. 이 5개의 문장에 대한 멘티의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분하였고, 분석 시에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은 멘티 표본에서 .93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멘토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멘토는 내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2) 멘토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다.	1	2	3	4
(3) 멘토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다.	1	2	3	4
(4) 멘토는 나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	1	2	3	4
(5) 멘토는 나와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1	2	3	4

2) 종속변수

(1) 절망감

절망감은 Kazadin, French, Unis, Esveldt-Dawson, Sherick(1983)이 개발한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HSC)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는 정적상관관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며 자살충동이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el and Kevin, 1987; Sprito, Williams, Stark, and Hart, 1988).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분신뢰도 및 Cronbach's α 값이 .70과 .71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며(Joel and Kevin, 1987),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의 2개 응답범주만을 사용하고 있어 아동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망감이 클수록 큰 값을 가지도록 자료의 부호화가 이루어졌고 응답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멘티와 비교집단 아동의 사전검사에서 산출된 알파값은 .76으로, 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적정수준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1번(그렇다) 칸에,'다르다'고 생각되면 2번(아니다) 칸에 ∨표 해주세요.	그렇다	아니다
(1) 미래에는 뭔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1	2
(2) 나 스스로는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1	2
(3)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음을 알고 있다.	1	2
(4) 어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떨지 나는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다.	1	2
(5)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1	2
(6) 언젠가는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가진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2
(7) 나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	2
(8) 나는 현재 운이 없는 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1	2
(9) 내 미래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1	2
(10)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2
(11)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1	2
(12) 나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1	2
(13)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1	2
(14) 내가 어른이 된다면 정말로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1	2
(15) 나의 미래는 뭔가 분명하지 않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16) 나는 앞으로 나쁜 시간보다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1	2
(17) 내가 많이 노력한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1	2

(2) 외로움

이 연구에서 아동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Asher, Hymel, 그리고 Renshaw(1984)가 개발한 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관계 측정(sociometric measures)방법에 기초하며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척도의 신뢰도는 .79로 보고된다(Cassidy and Asher, 1992).
원척도는 '나는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가 없다' 등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만족을

측정하는 16개의 문항과 외로움과 관련이 없는 8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8개 문항은 아동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며 점수 산정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항이 많은 경우 아동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 8개 문항은 이번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멘티 및 비교집단 아동의 사전 검사에서 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92를 기록하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친구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를 골라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V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귄다.	1	2	3	4	5
(2) 우리 반에는 내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1	2	3	4	5
(3) 나는 모둠활동을 잘한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반에 친구가 많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에서 외롭다.	1	2	3	4	5
(7) 내게 친구가 필요할 때, 나는 우리 반에서 친구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5
(8) 학교에서 나를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나에게는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가 없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1	2	3	4	5
(11) 나는 학교에서 외톨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2) 나는 학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친구가 없다.	1	2	3	4	5
(13) 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14) 나는 학교에서 혼자다.	1	2	3	4	5
(15)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
(16) 나는 우리 반에 친구가 아무도 없다.	1	2	3	4	5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개의 응답범주가 이용되며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6개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79이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이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4)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Karcher(2005)가 개발한 헤밍웨이 청소년연계성척도(Hemingway: Measure of Adolescent Connectedness) 5.0판의 '부모와의 연계성'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헤밍웨이 청소년연계성척도는 Karcher가 근거이론접근법, 문항반응이론 및 요인분석에 기초하여 개발한 것으로 15개 하위차원으로 총 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archer와 Lee(2002)는 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헤밍웨이 청소년연계성척도와 Dubois 및 그의 동료들(1996)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며 이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주장한 바 있다. 헤밍웨이 청소년연계성척도 중 '부모와의 연계성' 하위척도는 청소년이 '부모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은지' 등 6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다. 원 개발자에 의해 보고된 '부모와의 연계성' 하위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1-.87의 범위를 가지며, 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일관성신뢰도 .76, 이 연구에서는 .75의 수준을 보였다.

평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식구들은 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1	2	3	4	5
(2)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	2	3	4	5
(3) 나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4) 나와 우리 부모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이 다르다.	1	2	3	4	5
(5) 나와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다.	1	2	3	4	5
(6) 나는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5

(5)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발달연구센터(Developmental Studies Center[DSC],2000)가 초등학교 아동이 스스로 평가하는 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 능력 사정을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 '나는 잘난 척 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다' 등 아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개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개발자의 연구표본에서는 .80, 그리고 이 연구 표본에서는 .89의 내적일관성신뢰도를 보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슬퍼할 때면 나는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다.	1	2	3	4	5
(2)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내 순서를 잘 지키며 나의 것들을 함께 나눌 줄 안다.	1	2	3	4	5
(5) 나는 잘난 척 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매우 잘 한다.	1	2	3	4	5
(7) 사람들이 언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나는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다투지 않고 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서투르다.	1	2	3	4	5
(10)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잘 찾아낸다.	1	2	3	4	5

(6)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김용래(1993)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의 일부인 '학교생활적응' 하위척도이다. 김용래는 탐색적요인분석을 통해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모두 6개로 '나는 우리학교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등 아동이 학교에서 요구받는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개발자가 보고한 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1이었으며 이 연구 표본에서도 .82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학교에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항상 그렇다'면 4번 칸에,'대체로 그렇다'면 3번 칸에, '가끔 그렇다'면 2번 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번 칸에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1	2	3	4
(2) 나는 우리학교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2	3	4
(3)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쓴다.	1	2	3	4
(4) 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해 간다.	1	2	3	4
(5) 나는 학교 내의 각종 게시물이나 방송 또는 안내에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6)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한다.	1	2	3	4

(7) 학교 연계

아동의 학교와의 연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6개의 문항은 헤밍웨이 청소년연계성척도(Hemingway: Measure of Adolescent Connectedness) 5.0판(Karcher, 2005)의 하위척도 중 하나인 '학교와의 연계성'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차원에서는 '학교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청소년의 마음가짐 및 심리적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응답범주는 1에서 5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와의 연계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헤밍웨이 청소년연계성척도의 '학교' 하위차원과 Dubois 및 동료들(1996)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학교' 하위차원은 .61의 상관관계를 보인 바 있다(Karcher and Lee, 2002). 원척도개발자(Karcher, 2005)에 따르면 이 하위차원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6 - .91의 범위를 가진 반면, 대만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이보다 다소 낮은 .75의 알파값이 보고된 바 있다(Karcher and Lee, 2002). 이 연구표본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5를 기록하였다.

평소 학교생활은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1	2	3	4	5
(2) 나는 학교생활을 즐긴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생활이 너무 지루하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생활을 잘 한다.	1	2	3	4	5
(5) 나는 학교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6)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멘티에 대한 멘토링 효과 측정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를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멘티 종속변수 및 측정

구분	변수	문항	응답 범주	출처	출처 신뢰도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멘티	절망감	17	1-2	Kazadin, et al(1983)	.70	.76
	외로움	16	1-5	Asher, et al(1984, 1992)	.79	.92
	자아존중감	6	1-5	한국청소년패널	.70	.79
	부모연계	6	1-5	Karcher(2005)	.76	.75
	사회적 유능감	10	1-5	Development studies center(2000)	.80	.89
	학교생활적응	6	1-4	김용래(1993)	.81	.82
	학교연계	6	1-4	Karcher(2005)	.86	.85

주 :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가족, 주관적 경제상태를 포함함

(8) 멘티가 인식하는 변화

멘티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멘토링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멘토링활동 이후 멘티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후검사 시 포함하였다. 멘토링활동 이후의 변화는 '나 자신이 더 좋아졌다' 등 8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장에 대해 멘티 스스로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네 개의 응답범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멘토를 만난 후에 생긴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멘토를 만난 후 나는 나의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1	2	3	4
(2) 멘토를 만난 후 나는 성격이 더 밝아졌다.	1	2	3	4
(3) 멘토를 만난 후 나는 학교공부가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1	2	3	4
(4) 멘토를 만난 후 나는 학교 선생님과 더 잘 지내고 있다.	1	2	3	4
(5) 멘토를 만난 후 나는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1	2	3	4
(6) 멘토를 만난 후 나는 더 많이 웃게 되었다.	1	2	3	4
(7) 멘토를 만난 후 나는 가족들과 더 잘 자내고 있다.	1	2	3	4
(8) 멘토를 만난 후 나는 나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1	2	3	4

3) 통제변수

사전검사점수와 성별,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통제변수로 처리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경우 1, 남성인 경우 2를 부여하였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실제 소득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멘티, 멘토 설문지에서 사용한 응답범주에 차이를 두었다. 즉, 멘티와 비교집단의 경우 1점(전혀 부자가 아니다)부터 4점(많이 부자이다)까지의 범위로 구분하고 분석에서는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한 반면, 멘토와 비교집단 청소년에게는 1점(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부터 6점(상당한 부자이다)까지로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분석에서는 응답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멘토

1) 독립변수[7]

(1) 멘토링 빈도

멘토링 빈도는 멘티와 멘토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를 의미한다. 사후검사에서 응답 범주는 참여관찰을 통해 ① 두세 달에 1번 이하, ② 한 달에 1번 정도, ③ 한 달에 2-3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⑤ 일주일에 2-3회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등 6개로 최종 구분하였다.

여러분은 지난 3달 동안 얼마나 자주 멘티를 만났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 ① 두세 달에 1번 이하
- ☐ ② 한 달에 1번 정도
- ☐ ③ 한 달에 2-3번 정도
- ☐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 ☐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7) 총 10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2) 1회 평균 멘토링 시간

멘티와 만나서 평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지를 의미하며 1점부터 9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1점은 평균 30분 이하이며, 30분씩 증가할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증가하여 최대값인 9점은 4시간 30분 이상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멘티를 만나게 되면 보통 얼마나 같이 있었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 ① 30분 이하
- ☐ ② 1시간 정도
- ☐ ③ 1시간 30분 정도
- ☐ ④ 2시간 정도
- ☐ ⑤ 2시간 30분 정도
- ☐ ⑥ 3시간 정도
- ☐ ⑦ 3시간 30분 정도
- ☐ ⑧ 4시간 정도
- ☐ ⑨ 4시간 30분 이상

(3) 멘티와의 관계지속 희망 정도

멘토링활동이 종결된 뒤에도 멘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은지를 의미하며 1점(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부터 5점(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까지의 범위를 가진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적인 만남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지금의 멘티를 계속해서 만나기를 얼마나 바라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 ①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 ☐ ②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 ☐ ③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
- ☐ ④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
- ☐ ⑤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

(4) 멘티-멘토 유사성

성격, 가치관, 취미생활, 관심사, 가정형편, 재미있어 하는 활동, 장래희망, 대화스타일 등 8개 영역에서 멘티와 자신이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1점(매우 다르다)부터 4점(매우 비슷하다)까지의 범위를 갖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2 수준이었다.

여러분과 멘티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비슷한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 해주세요.	매우 다르다	다른 편이다	비슷한 편이다	매우 비슷하다
(1) 멘티와 나의 성격은	1	2	3	4
(2) 멘티와 나의 가치관은	1	2	3	4
(3) 멘티와 나의 취미생활은	1	2	3	4
(4) 멘티와 나의 관심사	1	2	3	4
(5) 멘티와 나의 가정형편은	1	2	3	4
(6) 멘티가 재미있어 하는 활동은	1	2	3	4
(7) 멘티와 나의 장래희망은	1	2	3	4
(8) 멘티와 나의 대화 스타일은	1	2	3	4

(5) 멘토에 대한 멘티 태도

멘토에 대한 멘티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멘티는 내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멘티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 등 5개의 진술문을 자체 제작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멘토에 대한 멘티의 태도가 호의적이며 둘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표본에서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2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멘티의 행동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멘티는 나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1	2	3	4
(2) 멘티는 내게 자신의 속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1	2	3	4
(3) 멘티는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4) 멘티는 내게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멘티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	1	2	3	4

(6) 멘토로서의 경험 유무

이번 청소년 멘토링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멘토로서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경험이 없는 멘토에게는 1, 경험이 있는 멘토에게는 2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7) 멘토로서의 자질

멘토로서의 자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멘토로서 멘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행동적 특성을 기술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멘토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응답범주로 보고하도록 하고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표본에서 계산된 척도의 신뢰도는 .82였다.

아래 표의 문장들은 멘티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2) 나는 멘토로서 멘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3) 나는 멘토로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4) 나는 멘티의 생각이나 마음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5) 멘티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해도 나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8) 멘토교육 시간

사전에 멘토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멘토교육 시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참여관찰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멘토링활동 각 기관에 소속된 멘토가 참여한 교육시간을 측정하기로 하였으며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1점은 30분 이하, 최고점인 5점은 멘토교육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멘토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부터 멘토링에 관해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요?

- ☐ ① 30분 이하
- ☐ ② 1시간 정도
- ☐ ③ 2시간 정도
- ☐ ④ 3시간 정도
- ☐ ⑤ 4시간 정도
- ☐ ⑥ 5시간 이상

(9) 멘토교육 내용

멘토교육 내용은 멘토링활동 이전에 멘토교육에서 다루어진 교육 주제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지침(초안)'에서 제시한 멘티를 대하는 태도,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범절, 멘티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의 대처법, 멘티가 곤란한 것을 조를 때의 대처법, 멘토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에 대해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연락처 등 총 10개의 멘토링 교육주제를 제시하였다. 멘토가 위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1점, 받지 않았으면 0점을 부여한 후 합산 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혹은 그 곳의 직원)은 여러분이 멘토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분야는 무엇이었나요?(해당사항 모두 ∨표)

- ☐ ① 멘토링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특징, 의의, 규칙 등)
- ☐ ② 멘티를 대하는 태도
- ☐ ③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범절(에티켓)
- ☐ ④ 멘티와 대화하는 법
- ☐ ⑤ 멘티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보일 때의 대처법
- ☐ ⑥ 멘티 앞에서 해서는 안되는 말이나 행동
- ☐ ⑦ 멘티가 곤란한 것을 조를 때의 대처법
- ☐ ⑧ 멘토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에 대해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방법(전문가 연락처 등)
- ☐ ⑨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연락처
- ☐ ⑩ 기타(_____)

(10) 기관과의 의사소통 빈도

기관과의 의사소통 빈도는 멘토링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멘토가 기관과 얼마나 자주 의사소통을 했는지를 의미한다. 측정을 위해 6개의 범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하점인 1점은 '두세 달에 1번 이하', 최고점인 6점은 '일주일에 4번 이상' 시범사업 운영기관과 소통한 것을 의미한다.

멘토로서 활동하는 동안 여러분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혹은 그 곳의 직원)과 여러분의 활동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나요(직접 만남 또는 전화를 통해서)?

- ☐ ① 두 세 달에 1번 이하
- ☐ ② 한 달에 1번 정도
- ☐ ③ 한 달에 2-3번 정도
- ☐ ④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2) 종속변수

멘토 차원의 멘토링 효과 측정을 위하여 최근 홍콩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척도(Chinese Positive Youth Development)'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Shek이 자신의 동료(Shek, Ma, 2009; Shek, Siu, and Lee, 2007)와 개발하였으며 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 인지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도덕적 유능감, 정서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력, 친사회적 규범,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삶의 충만감, 유대감, 친사회적 참여 등 15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개발자는 적응도가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이 이 척도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유의미한 평균차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Shek, Siu, and Lee, 2007). 또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척도가 Search Institute(2005)가 개발한 성장과 발전 척도(Thriving Scale),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Scale)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와는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물질사용, 비행 및 문제행동에 참여하려는 의도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

원 척도 개발자가 보고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63부터(행동적 유능감), .86(삶의 충만감)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64(친사회적 규범)부터 .90(미래에 대한 확신)의 범위를 기록하였다. 응답범주는 '삶의 충만감'만 1점부터 7점까지를, 나머지 14개의 학위척도에서는 1점부터 6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의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1) 사회적 유능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시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6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6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안다.	1	2	3	4	5	6
(5)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6
(6) 나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할 줄 안다.	1	2	3	4	5	6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	1	2	3	4	5	6

(2) 자아탄력성

난관에 직면했을 때의 마음가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려움과 맞닥뜨려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2)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나는 긍정적이다.	1	2	3	4	5	6
(3) 의지가 굳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6
(4)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5)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도 나는 올바른 자세로 삶을 살 것이다.	1	2	3	4	5	6
(6) 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6

(3) 인지적 유능감

아래 표의 문장들은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6
(2) 나는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볼 줄 안다.	1	2	3	4	5	6
(3)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1	2	3	4	5	6
(4)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안다.	1	2	3	4	5	6
(5) 나는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5	6
(6) 나는 사물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구별할 수 있다.	1	2	3	4	5	6

(4) 행동적 유능감

대인관계와 관련한 행동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내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줄 안다.	1	2	3	4	5	6
(2) 누군가 나를 설득하고자 할 때, 나는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할 줄 안다.	1	2	3	4	5	6
(3) 나는 나에 대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1	2	3	4	5	6
(4)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6
(5)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나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과할 것이다.	1	2	3	4	5	6
(6)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는 회피하기보다 직면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1	2	3	4	5	6

(5) 도덕적 유능감

대인관계와 관련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2)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3)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쉽게 용서한다.	1	2	3	4	5	6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공정할 것이다.	1	2	3	4	5	6
(5)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1	2	3	4	5	6
(6)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 자주 반성한다.	1	2	3	4	5	6

(6) 정서적 유능감

기분 및 감정과 관련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쾌한 사람이다.	1	2	3	4	5	6
(2) 슬플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안다.	1	2	3	4	5	6
(3) 화가 날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6
(4) 다른 사람과 갈등상황일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5	6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1	2	3	4	5	6
(6) 나는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숨기지 않는다.	1	2	3	4	5	6

(7) 자아효능감

문제해결의지와 관련한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는 잘 조정해나갈 수 있다.	1	2	3	4	5	6
(2)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1	2	3	4	5	6
(3) 나는 나의 삶을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6
(4)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6
(5) 나는 내 삶이 다른 사람이나 운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다.	1	2	3	4	5	6
(6)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1	2	3	4	5	6
(7) 내가 하기로 결심한 것들의 대부분을 나는 완수해낸다.	1	2	3	4	5	6

(8) 자기결정력

선택 및 결정과 관련된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1	2	3	4	5	6
(2)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3) 나는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면 꿋꿋이 밀고 나간다.	1	2	3	4	5	6
(4)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에 집중하여 끝마친다.	1	2	3	4	5	6
(5)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1	2	3	4	5	6

(9) 친사회적 규범

사회규범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1	2	3	4	5	6
(2) 만약 기회가 있다면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1	2	3	4	5	6
(3) 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법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믿는다.	1	2	3	4	5	6
(4)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6

(10) 긍정적 자아정체감

자기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이든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	1	2	3	4	5	6
(2) 내 또래와 비교했을 때, 나의 수행력은 만족할 만하다.	1	2	3	4	5	6
(3)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1	2	3	4	5	6
(4) 사람들은 내게 호감을 가지는 것 같다.	1	2	3	4	5	6
(5) 나는 매사 자신 있다.	1	2	3	4	5	6
(6) 나는 효자(또는 효녀)이다.	1	2	3	4	5	6
(7) 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11)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2) 나는 미래에 결국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3)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4)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5) 나의 미래는 즐거울 것이다.	1	2	3	4	5	6
(6) 나는 나의 미래가 만족스러울 것이라 믿는다.	1	2	3	4	5	6
(7)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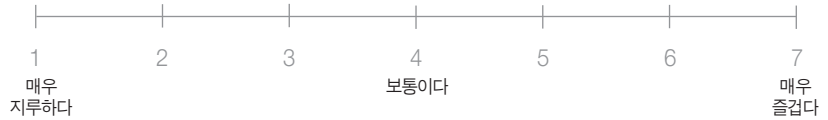
(12)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과업을 완수했을 때 주변 어른들은 내게 칭찬을 하신다.	1	2	3	4	5	6
(2)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준다.	1	2	3	4	5	6
(3) 주변 어른들은 내가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1	2	3	4	5	6
(4) 나의 생활환경에서 보상과 처벌에 대한 규정은 분명한 편이다.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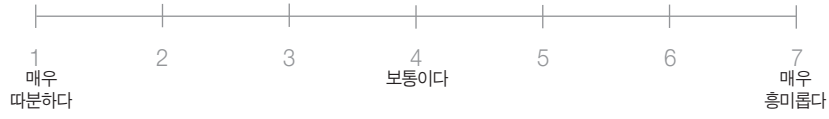
(13) 삶의 충만감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면 어떤 서술어가 적당할까요? 1번부터 7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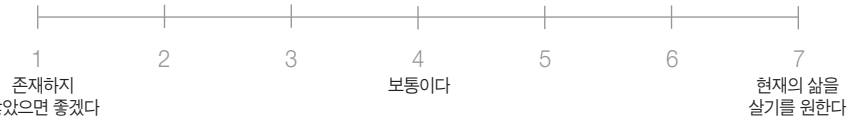
(1) 대체로 내 인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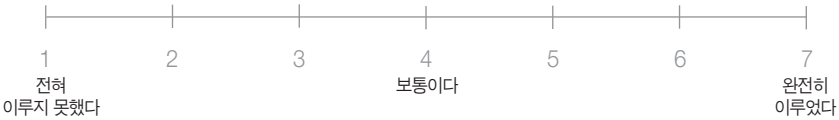
(2) 내게 있어 인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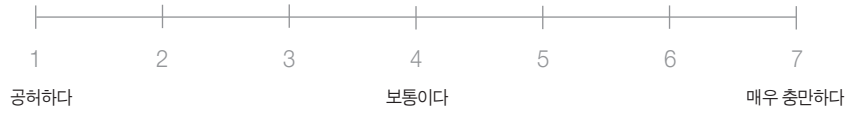
(3) 나는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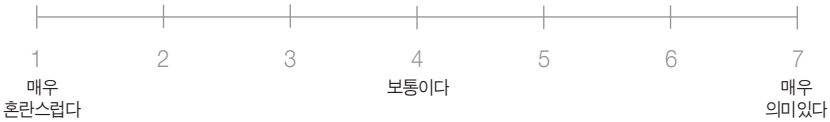
(4)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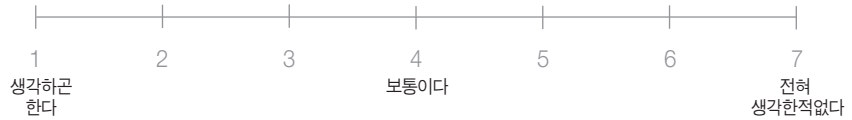
(5) 내 인생은



(6) 나는 세상과의 관계가



(7) 나는 자살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14) 유대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1	2	3	4	5	6
(2)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친구들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1	2	3	4	5	6
(3)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주변 어른들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1	2	3	4	5	6
(4) 내 주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	2	3	4	5	6
(5) 내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1	2	3	4	5	6
(6)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1	2	3	4	5	6

(15) 친사회적 참여

아래 표의 문장들은 다양한 활동 참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권장된다.	1	2	3	4	5	6
(2)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통로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6
(3)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상호협조가 권장된다.	1	2	3	4	5	6
(4)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나눔이 권장된다.	1	2	3	4	5	6
(5) 나는 우리 학교 혹은 사회에 뭔가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2	3	4	5	6

종속변수로 사용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척도의 하위차원, 대표문항, 신뢰도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표 Ⅲ-2〉이다.

〈표 Ⅲ-2〉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척도

하위 차원	대표문항	문항수 (점수범위)	개발자 보고α값	본 표본 α값
사회적 유능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	7 (1-6)	.84	.86
자아 탄력성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나는 긍정적이다. 어려움과 맞닥뜨려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1-6)	.82	.78
인지적 유능감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볼 줄 안다.	6 (1-6)	.86	.82
행동적 유능감	누군가 내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줄 안다. 나에 대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6 (1-6)	.63	.81
도덕적 유능감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쉽게 용서한다.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 자주 반성한다.	6 (1-6)	.79	.69
정서적 유능감	화가 날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6 (1-6)	.81	.78
자아 효능감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내가 하기로 결심한 것들의 대부분을 나는 완수해낸다.	7 (1-6)	.63	.76
자기 결정력	나는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면 꿋꿋이 밀고 나간다.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5 (1-6)	.76	.82
친사회적 규범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우리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4 (1-6)	.78	.64
긍정적 자아정체감	나는 무엇이든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 나는 매사 자신있다.	7 (1-6)	.80	.86
미래에 대한 확신	나는 미래에 결국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나의 미래는 즐거울 것이다.	7 (1-6)	.73	.90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나의 과업을 완수했을 때 주변어른들은 내게 칭찬을 하신다. 주변어른들은 내가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4 (1-6)	.75	.78
삶의 충만감	내 인생은 ①공허하다 ~ ⑦매우 충만하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①매우 혼란스럽다 ~ ⑦매우 의미있다	7 (1-7)	.86	.86
유대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내 주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6 (1-6)	.80	.88
친사회적 참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통로를 거쳐야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우리학교/사회에 뭔가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1-6)	.78	.85

3) 통제변수

사전검사점수와 성별,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통제변수로 처리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경우 1, 남성인 경우 2를 부여하였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실제 소득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멘티, 멘토 설문지에서 사용한 응답범주에 차이를 두었다. 즉, 멘티와 비교집단의 경우 1점(전혀 부자가 아니다)부터 4점(많이 부자이다)까지의 범위로 구분하고 분석에서는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한 반면, 멘토와 비교집단 청소년에게는 1점(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부터 6점(상당한 부자이다)까지로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분석에서는 응답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멘티, 멘토, 각각의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한 후 사후검사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사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분석, t-검정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사전검사점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8)]

8) 이 연구에서 효과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들을 엄선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지 않고 세 개의 통제변수들의 영향력만이 고려된 상태에서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하나하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Ⅳ.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1. 멘티
2. 멘토

IV.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1. 멘티

1) 멘티와 비교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전검사에서 멘티는 111명, 비교집단은 83명으로 비교집단 아동이 28명 적었고, 연령은 멘티와 비교집단이 각각 만 6세에서 14세, 만 6세에서 15세의 유사한 범위를 보였다. 평균 연령 역시 10.28(sd=1.50)세, 10.17(sd=1.52)세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t(192)=0.5047$, $p>.05$). 성별의 경우 비교집단의 남아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1)=0.20$, $p>.05$).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빈곤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멘티는 63.3%, 비교집단은 68.7%였으며($x^2(1)=0.60$, $p>.05$), 양친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비교집단이 56.6%로 약간 높았으나($x^2(1)=0.94$, $p>.05$),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비교집단이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2)=1.70$, $p>.05$). 즉, 멘티집단과 비교집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연구설계에서 비교집단을 무작위할당 하지는 못하였으나 두 집단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멘티와 비교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 아래 〈표 IV-1〉이다.

〈표 IV-1〉 멘티와 비교집단의 특성

변수	세부항목	멘티집단 (N=111)	비교집단 (N=83)	교차분석결과	
				x^2 검증	P값
성별	남	45.8	42.5	$x^2=0.20$ (df=1)	$p>.05$
	여	54.2	57.5		
가정의 경제적 형편 (주관적 판단)	빈곤	63.3	68.7	$x^2=0.60$ (df=1)	$p>.05$
	부유	36.7	31.3		
학업의 어려움을 느끼는 빈도	항상 또는 자주	19.8	26.5	$x^2=1.70$ (df=2)	$p>.05$
	가끔	36.0	37.4		
	거의 없거나 어쩌다 한 번	44.1	36.1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 함께	49.5	56.6	$x^2=0.94$ (df=1)	$p>.05$
	그 외	50.5	43.4		

2) 멘티과 비교집단 차이검증(전체)

멘티에 대한 멘토링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covariate)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여 멘티와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모든 분석모형에 사전검사점수와 실험처치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 사전검사점수와 상호작용변수 모두가 포함된 분석모형 결과를,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검사점수만이 공변량으로 사용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별,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였다.

멘티집단과 비교집단 전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절망감($F(1, 193)=0.70$, $p > .05$), 외로움($F(1, 192)=1.91$, $p > .05$), 자아존중감($F(1, 189)=0.99$, $p > .05$), 부모와의 관계($F(1, 191)=0.71$, $p > .05$), 사회적 유능감($F(1, 192)=1.05$, $p > .05$), 학교생활 적응($F(1, 189)=0.21$, $p > .05$), 학교와의 연계성($F(1, 184)=0.63$, $p > .05$) 등 모든 항목에서 멘티와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전체)

변수	사전 / 사후	멘티집단 (N=111)	통제집단 (N=83)	집단효과 검증	
				F값	P값
절망감 (hopelessness)	사전검사	1.261	1.288	F=0.70 (df=1, 193)	P > .05
	사후검사	1.284	1.268		
	변화량	0.023	-0.020		
외로움	사전검사	2.076	2.038	F=1.91 (df=1, 192)	P > .05
	사후검사	2.154	2.009		
	변화량	0.078	-0.029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3.685	3.524	F=0.99 (df=1, 189)	P > .05
	사후검사	3.504	3.586		
	변화량	- 0.181	0.062		
부모와의 관계	사전검사	3.043	2.944	F=0.71 (df=1, 191)	P > .05
	사후검사	2.929	3.000		
	변화량	- 0.114	0.056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3.427	3.372	F=1.05 (df=1, 192)	P > .05
	사후검사	2.698	2.586		
	변화량	-0.729	-0.786		
학교생활 적응	사전검사	2.869	2.821	F=0.21 (df=1, 189)	P > .05
	사후검사	2.783	2.744		
	변화량	-0.086	-0.077		

학교와의 연계성	사전검사	3.642	3.493	F=0.63 (df=1, 184)	P 〉.05
	사후검사	3.509	3.559		
	변화량	-0.133	0.066		

3) 멘티집단과 비교집단 차이검증(성별 분석)

멘티와 비교집단의 아동을 성별로 구분하여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아의 경우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전검사와 실험처지 간의 상호작용 역시 모든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절망감(F(1, 82)=0.02, p〉.05), 외로움(F(1, 81)=1.42, p〉.05), 자아존중감(F(1, 81)=1.89, p〉.05), 부모와의 관계(F(1, 80)=0.00, p〉.05), 사회적 유능감(F(1, 81)=0.03, p〉.05), 학교생활 적응(F(1, 81)=0.03, p〉.05) 및 학교와의 연계성(F(1, 79)=0.22, p〉.05).

〈표 Ⅳ-3〉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여아)

변수	사전/사후	멘티집단 (N=49)	통제집단 (N=36)	집단효과 검증	
				F값	P값
절망감 (hopelessness)	사전검사	1.245	1.246	F=0.02 (df=1, 82)	P 〉.05
	사후검사	1.269	1.276		
	변화량	0.024	0.030		
외로움	사전검사	1.811	2.132	F=1.42 (df=1, 81)	P 〉.05
	사후검사	2.040	1.981		
	변화량	0.229	-0.151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3.816	3.528	F=1.89 (df=1, 81)	P 〉.05
	사후검사	3.551	3.690		
	변화량	-0.265	0.162		
부모와의 관계	사전검사	2.992	3.065	F=0.00 (df=1, 80)	P 〉.05
	사후검사	2.898	2.919		
	변화량	-0.094	-0.146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3.646	3.406	F=0.03 (df=1, 81)	P 〉.05
	사후검사	2.775	2.675		
	변화량	-0.871	-0.731		
학교생활 적응	사전검사	2.962	2.894	F=0.03 (df=1, 81)	P 〉.05
	사후검사	2.946	2.954		
	변화량	-0.016	0.060		

학교와의 연계성	사전검사	3.828	3.448	F=0.22 (df=1, 79)	P 〉.05
	사후검사	3.597	3.560		
	변화량	-0.231	0.112		

남아의 경우 〈표 Ⅳ-4〉과 같이 절망감(F(1, 103)=1.18, p〉.05), 자아존중감(F(1, 100)=0.02, p〉.05), 부모와의 관계(F(1, 103)=0.60, p〉.05), 사회적 유능감(F(1, 103)=1.36, p〉.05), 학교생활 적응(F(1, 100)=0.58, p〉.05), 학교와의 연계성(F(1, 97)=1.09, p〉.05)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전검사와 실험처치간에도 유의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로움의 경우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처치의 주효과(main effect)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림 Ⅳ-1]와 같이 실험처치와 사전검사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02)=4.66, p〈.05). 즉, 가로축은 사전검사점수를, 세로축은 사후검사점수를 의미하며 굵은 실선은 멘티집단을, 가는 점선은 비교집단을 의미한다.

사전검사점수가 약 1.5점인 멘티의 경우 사후검사 예측점수는 1.8점 정도인데 비해 같은 비교집단 아동의 사후검사 예측점수는 2.0점 정도로 파악된다. 반면, 외로움의 사전검사점수가 약 4점인 경우 예측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은 2.4점 정도인데 반해 멘티집단은 3점을 상회하고 있다. 즉, 외로움 정도가 낮은 멘티는 사후검사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더 낮아졌으나, 사전검사에서 외로움 정도가 큰 멘티는 멘토링활동 이후 비교집단보다 외로움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멘토링이 멘티의 외로움이라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원래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는 멘티는 멘토링을 종결 하더라도 외로움이 줄어드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멘티는 멘토링 종결 이후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섣부른 개입과 종결이 결국 멘티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일부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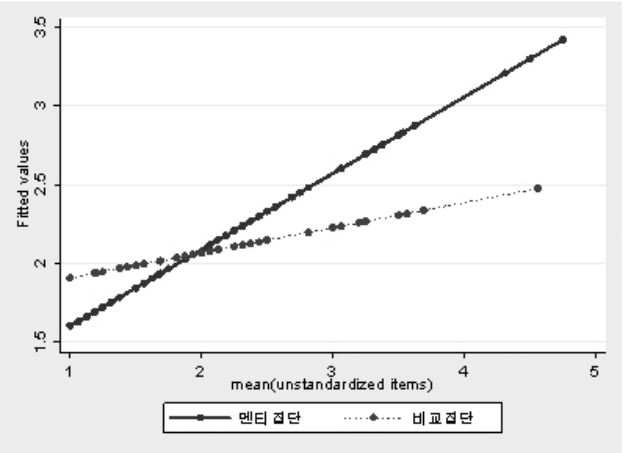
〈표 Ⅳ-4〉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남아)

변수	사전/사후	멘티집단 (N=61)	통제집단 (N=45)	집단효과 검증	
				F값	P값
절망감 (hopelessness)	사전검사	1.276	1.323	F=1.18 (df=1, 103)	P 〉.05
	사후검사	1.290	1.270		
	변화량	0.014	-0.053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3.540	3.500	F=0.02 (df=1, 100)	P 〉.05
	사후검사	3.456	3.463		
	변화량	-0.084	-0.037		
부모와의 관계	사전검사	3.090	2.830	F=0.60 (df=1, 103)	P 〉.05
	사후검사	2.964	3.052		
	변화량	-0.126	0.222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3.246	3.331	F=1.36 (df=1, 103)	P 〉.05
	사후검사	2.612	2.491		
	변화량	-0.634	-0.840		
학교생활 적응	사전검사	2.787	2.741	F=0.58 (df=1, 100)	P 〉.05
	사후검사	2.665	2.584		
	변화량	-0.122	-0.157		
학교와의 연계성	사전검사	3.495	3.473	F=1.09 (df=1, 97)	P 〉.05
	사후검사	3.446	3.601		
	변화량	-0.049	0.128		

〈표 Ⅳ-5〉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의 외로움(남아)

변수	사전/사후	멘티집단 (N=61)	비교집단 (N=45)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외로움	사전검사	2.279	2.006	F=3.36 (df=1, 102)	F=4.66* (df=1, 102)
	사후검사	2.222	2.068		
	변화량	-0.057	0.062		

*p 〈.05



[그림 Ⅳ-1] 외로움 사전 · 사후검사의 관계(남아)

4) 멘티집단과 비교집단 차이검증(도 · 농별 분석)

도시지역 멘티의 경우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망감($F(1, 93)=0.88$, $p>.05$), 외로움($F(1, 111)=0.21$, $p>.05$), 자아존중감($F(1, 111)=0.14$, $p>.05$), 부모와의 관계($F(1, 110)=0.19$, $p>.05$), 사회적 유능감($F(1, 111)=1.77$, $p>.05$), 학교생활 적응($F(1, 111)=0.17$, $p>.05$), 학교와의 연계성($F(1, 108)=0.76$, $p>.05$)에서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 모두 비교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공분산분석 결과: 멘티, 비교집단(도시)

변수	사전/사후	멘티집단 (N=60)	통제집단 (N=54)	집단효과 검증	
				F값	P값
절망감 (hopelessness)	사전검사	1.249	1.271	F=0.88 (df=1, 93)	P 〉.05
	사후검사	1.276	1.264		
	변화량	0.027	-0.007		
외로움	사전검사	2.044	1.903	F=0.21 (df=1, 111)	P 〉.05
	사후검사	2.094	1.966		
	변화량	0.050	0.063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3.803	3.599	F=0.14 (df=1, 111)	P 〉.05
	사후검사	3.622	3.574		
	변화량	-0.181	-0.025		
부모와의 관계	사전검사	3.150	3.120	F=0.19 (df=1, 110)	P 〉.05
	사후검사	2.928	2.975		
	변화량	-0.222	-0.145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3.478	3.459	F=1.77 (df=1, 111)	P 〉.05
	사후검사	2.784	2.623		
	변화량	-0.694	-0.836		
학교생활 적응	사전검사	2.946	2.898	F=0.17 (df=1, 111)	P 〉.05
	사후검사	2.869	2.810		
	변화량	-0.077	-0.088		
학교와의 연계성	사전검사	3.654	3.581	F=0.76 (df=1, 108)	P 〉.05
	사후검사	3.489	3.594		
	변화량	-0.165	0.013		

농촌지역의 경우 〈표 Ⅳ-7〉, 〈표 Ⅳ-8〉에서와 같이 절망감(F(1, 63)=0.74, p〉.05), 자아존중감(F(1, 75)=1.41, p〉.05), 부모와의 관계(F(1, 78)=0.51, p〉.05), 사회적 유능감(F(1, 78)=0.14, p〉.05), 학교생활 적응(F(1, 75)=0.28, p〉.05), 학교와의 연계성(F(1, 73)=0.03, p〉.05) 등 외로움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멘티와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점수와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로움의 경우 멘티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는데(F(1, 77)=4.00, p 〈.05), [그림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검사점수가 대략 2점 미만인 멘티의 예측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보다 낮은 반면, 사전검사점수가 2점 이상인 멘티아동의 예측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사전검사에서 외로움 정도가 큰 멘티일수록 사후검사에서 비교집단과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전검사점수가 3점인 아동과 4점인 비교

집단의 아동은 사후검사 예측치는 각각 2점과 1.8점 정도이나 같은 점수의 멘티의 경우 각각 2.5점과 2.7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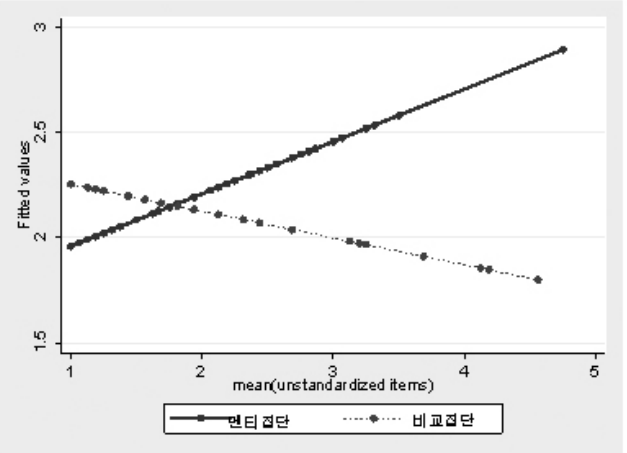
〈표 IV-7〉 공분산 분석결과: 멘티, 비교집단(농촌)

변수	사전/사후	멘티집단 (N=53)	통제집단 (N=29)	집단효과 검증	
				F값	P값
절망감 (hopelessness)	사전검사	1.273	1.318	F=0.74 (df=1, 63)	P 〉.05
	사후검사	1.292	1.278		
	변화량	0.019	-0.040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3.543	3.385	F=1.41 (df=1, 75)	P 〉.05
	사후검사	3.369	3.609		
	변화량	-0.174	0.224		
부모와의 관계	사전검사	2.919	2.615	F=0.51 (df=1, 78)	P 〉.05
	사후검사	2.930	3.046		
	변화량	0.011	0.431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3.368	3.210	F=0.14 (df=1, 78)	P 〉.05
	사후검사	2.600	2.518		
	변화량	-0.768	-0.692		
학교생활 적응	사전검사	2.777	2.678	F=0.28 (df=1, 75)	P 〉.05
	사후검사	2.684	2.621		
	변화량	-0.093	-0.057		
학교와의 연계성	사전검사	3.628	3.333	F=0.03 (df=1, 73)	P 〉.05
	사후검사	3.534	3.494		
	변화량	-0.094	0.161		

〈표 IV-8〉 공분산 분석결과: 멘티, 비교집단의 외로움(농촌)

변수	사전/사후	멘티집단 (N=53)	비교집단 (N=29)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외로움	사전검사	2.113	2.289	F=2.23 (df=1, 77)	F=4.00* (df=1, 77)
	사후검사	2.222	2.090		
	변화량	0.109	-0.199		

* p 〈.05



[그림 IV-2] 외로움 사전 · 사후검사의 관계(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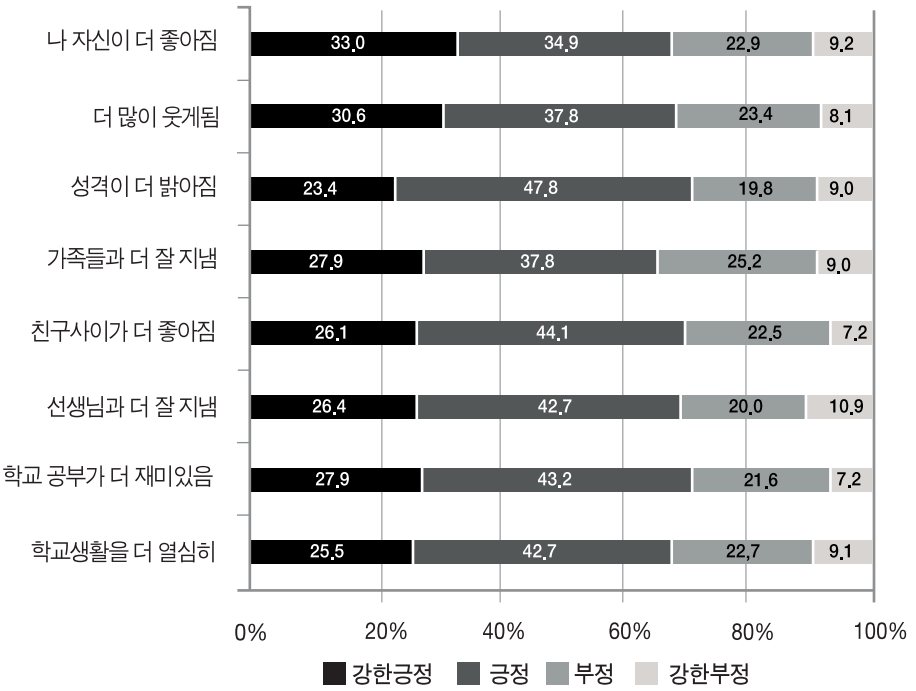
5) 멘티의 주관적인 멘토링 효과

멘티를 대상으로 멘토링 이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① 나 자신이 더 좋아졌다, ② 가족들과 더 잘 지내게 되었다, ③ 더 많이 웃게 되었다, ④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⑤ 선생님과 더 잘 지내게 되었다, ⑥ 학교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 ⑦ 성격이 더 밝아졌다, ⑧ 친구사이가 더 좋아졌다 등 8개의 진술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매우 그렇다',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네 개의 응답범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 항목 모두에서 '긍정(강한긍정 포함)' 에 해당하는 멘티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멘티가 멘토링이 도움이 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 성격이 더 밝아졌다', '더 많이 웃게 되었다', '나 자신이 더 좋아졌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각각 71.2%, 68.4%, 67.9%에 달하였으며, '학교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71.1%)',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68.2%)', '선생님과 더 잘 지내게 되었다(69.1%)', '친구사이가 더 좋아졌다(71.1%)' 역시 긍정응답이 70%를 상회하여 멘토링활동이 자신에 대한 태도와 학교생활 및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들과 더 잘 지내게 되었다' 는 긍정응답은 65.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긍정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멘토가 부모상(像)보다는 형, 언니 등 일종의 선배상(像)을 제시하는 역할모델로써 친구관계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또래멘토의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멘티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혹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 멘토링 효과성에 대한 멘티의 주관적 판단

이상에서 살펴본 멘티의 주관적인 판단이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멘티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림 Ⅳ-3]에서 제시한 8가지 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9] 〈표 Ⅳ-9〉와 같이 멘티의 주관적인 멘토링 효과는 절망감(b=-.065, p〈.05), 학교생활적응(b=.290, p〈.001), 자아존중감(b=.446, p〈.001), 외로움(b=-.266, p〈.01), 사회적 유능감(b=.318, p〈.001), 부모와의 관계(b=.273, p〈.01), 학교 연계성(b=.377, p〈.001)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멘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멘토링 효과는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멘토링활동의 유용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9) 각 문항의 알파값은 .95로 내적일관성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사전검사점수와 성별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 멘티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프로그램 효과성이 7개의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Ⅳ-9〉 멘티의 주관적인 판단과 사후검사점수의 관련성

IV \ DV (사후검사)	절망감	학교생활 적응	자아 존중감	외로움	사회적 유능감	부모와의 관계	학교와의 연계성
멘티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프로그램 효과성	-0.65*	.290***	.446***	-.266**	.318***	.273**	.377***

* p 〈.05 ** p 〈.01 *** p 〈.001

주: 통제변인은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사전검사점수임.

6) 멘티에 대한 멘토링 효과성 관련 요인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검사에서 측정한 절망감, 외로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와의 연계성 등 7개를 종속변수로, 멘토링 빈도, 멘토링 시간(1회 평균), 멘토와의 관계지속희망 정도, 멘티-멘토 유사성, 멘토와의 관계에 대한 멘티 만족도, 멘토 원조에 대한 멘티 만족도,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 등 7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검사점수, 성별 및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3개의 통제변수를 분석모형에 투입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표 Ⅳ-10〉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번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종속변수 각각에 대해 독립변수가 갖는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만이 모든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변수는 절망감(b=-.055, p〈.05), 외로움(b=-.171, p〈.05)과는 부적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b=.322, p〈.001), 부모와의 관계(b=.235, p〈.05), 사회적 유능감(b=.259, p〈.01), 학교생활적응(b=.365, p〈.001), 학교와의 연계성(b=.301,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멘토 원조에 대한 멘티 만족도'는 5개의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자아존중감(b=.193, p〈.05), 부모와의 관계(b=.216, p〈.01), 사회적 유능감(b=.288, p〈.001), 학교생활 적응(b=.203, p〈.01), 학교와의 연계성(b=.219, p〈.05)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멘티-멘토 유사성'과 '멘토와의 관계에 대한 멘티의 만족도'는 각각 3개의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전자는 자아존중감(b=.361, p〈.05), 사회적 유능감(b=.337, p〈.001), 학교생활 적응(b=.239, p〈.01)과 정적관계를, 후자는 자아존중감(b=.349, p〈.01)과는 정적관계, 절망감(b=-.129, p〈.001) 및 외로움(b=-.253, p〈.01)과는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멘토링 빈도' 역시 3개의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관계의 방향성은 다른 영향요인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즉, 멘토링 빈도가 커질수록 자아존중감(b=-.148, p〈.05), 사회

적 유능감(b=-.149, p〈.01), 학교생활적응(b=-107, p〈.05) 정도가 낮아졌다. 이는 활동 빈도가 많을수록 멘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멘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은 멘티의 경우 멘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잦은 빈도로 만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외 '멘토와의 관계지속을 희망하는 정도'와 '1회 평균 멘토링 시간'은 어떤 종속변수와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효과적인 멘토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멘티차원

DV (사후검사) \ IV	멘토링빈도	멘토링시간 (1회평균)	멘토와의 관계 지속희망정도	멘티-멘토 유사성	멘토와의 관계에 대한 멘티만족도	멘토원조에 대한 멘티만족도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
절망감	.010	.000	-.018	-.037	-.129***	-.036	-.055*
외로움	.013	-.010	-.012	-.038	-.253**	-.087	-.171*
자아존중감	-.148*	.015	.122	.261*	.349**	.193*	.322***
부모와의 관계	-.121	.014	.063	.098	.173	.216**	.235*
사회적 유능감	-.149**	.026	.054	.337***	.015	.288***	.259**
학교생활 적응	-.107*	.014	.089	.239**	.160	.203**	.365***
학교와의 연계성	-.129	.038	-.011	.155	.084	.219*	.301**

* p 〈.05 ** p 〈.01 *** p 〈.001

주: 통제변인은 성별, 가정의 경제적 형편, 사전검사 점수임

2. 멘토

1) 멘토와 비교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멘토와 비교집단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가족의 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재학 중인 학교 급 등 네 가지 항목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멘토집단의 경우 남성 비율이 5% 정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1)=0.69$, $p>.05$).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급의 경우 멘토집단은 중·고·대학교(대학원 포함)[10]재학생 비율이 1/3정도로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중학생이 다소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2)=3.58$, $p>.05$).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멘토집단의 경우 '빈곤하다(15.8%)'는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2(2)=3.97$, $p>.05$). 학교성적 역시 멘토와 비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2)=0.47$, $p>.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멘토집단과 비교집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표 IV-11〉 멘토와 비교집단의 특성

변수	세부항목	멘토집단 (N=127)	비교집단 (N=110)	분석결과	
				x^2 검증	P값
성별	남	22.8	27.5	$x^2=0.69$ (df=1)	$p>.05$
	여	77.2	72.5		
가정의 경제적 형편 (주관적 판단)	빈곤	15.8	7.3	$x^2=3.97$ (df=2)	$p>.05$
	보통	83.5	91.7		
	부유	0.8	0.9		
학교 성적	하위권	12.7	11.1	$x^2=0.47$ (df=2)	$p>.05$
	중위권	64.3	68.5		
	상위권	23. 0	20.4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급	중학교	33.1	22.0	$x^2=3.58$ (df=2)	$p>.05$
	고등학교	32.3	38.5		
	대학교/대학원	34.7	39.5		

2)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전체)

멘토링 효과를 나타내는 15개 항목 가운데 12개에서 실험처치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10) 대학원 재학생이 멘토집단에는 1명, 비교집단에 2명 포함되어 있다.

났다. 〈표 Ⅲ-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유능감(F(1, 233)=9.20, p〈.01), 자아탄력성(F(1, 233)=4.06, p〈.5), 인지적 유능감(F(1, 233)=4.65, p〈.05), 행동적 유능감(F(1, 234)=4.86, p〈.05), 도덕적 유능감(F(1, 234)=7.32, p〈.01), 자기효능감(F(1, 231)=14.00, p〈.001), 친사회적 규범(F(1, 232)=9.01, p〈.01), 긍정적 자아정체감(F(1, 232)=8.47, p〈.01), 미래에 대한 확신(F(1, 232)=5.26, p〈.05), 삶의 충만감(F(1, 233)=7.91, p〈.01), 유대감(F(1, 230)=6.65, p〈.05), 친사회적 참여(F(1, 228)=12.94, p〈.001)에서 사전검사점수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에도 멘토집단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량 자체는 비교집단이 오히려 큰 경우도 있어 실험처치의 주효과 뿐 아니라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개 분석모형 가운데 사회적 유능감(F(1, 233)=11.99, p〈.001), 자아탄력성(F(1, 233)=5.59, p〈.05), 자기효능감(F(1, 231)=16.37, p〈.001), 긍정적 자아정체감(F(1, 232)=10.62, p〈.01), 미래에 대한 확신(F(1, 232)=7.71, p〈.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F(1, 221)=4.08, p〈.05), 삶의 충만감(F(1, 233)=9.15, p〈.01), 친사회적 참여(F(1, 228)=16.07, p〈.01)를 종속변수로 하는 8개의 분석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림 Ⅳ-4]은 사전검사점수와 사후검사점수 간의 관계를 2차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굵은 직선은 멘토(EG: experimental group), 가는 점선은 비교집단(CG: comparison group)을 가리키며 8개의 그래프에서는 발견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사점수가 낮았던 멘토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보다 낮으나 사전검사점수가 높아지면서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에 점차 근접해간다. 둘째, 사전검사점수가 중간 정도(3-4점 정도)에 이르면 두 집단 청소년들의 사후검사점수는 동일해진다. 셋째, 사전검수점수가 높은 멘토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보다 높고, 사전검사점수가 높아질수록 멘토와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점수의 격차는 점차 커진다. 또한, 인지적 유능감, 정서적 유능감, 자기결정력 및 유대감을 종속변수로 한 4개 분석모형에서 p값 .05를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 변수에서의 사전-사후검사관계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효과와 거의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인지적 유능감을 제외한 세 개의 영역에서 상호작용변수의 p값은 0.1 내외로 통계적 유의도에 상당히 근접함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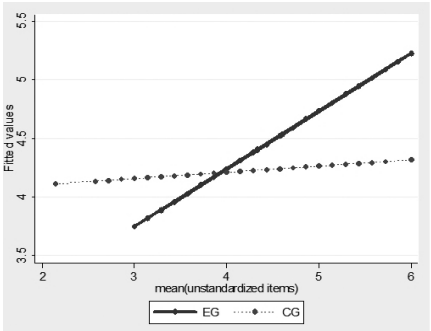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멘토링활동이 효과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명쾌하게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만 멘토링 효과가 참여한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멘토링활동 이전에 이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멘토링활동을 통해 자신의 좋은 특성을 더욱 향상시키거나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멘토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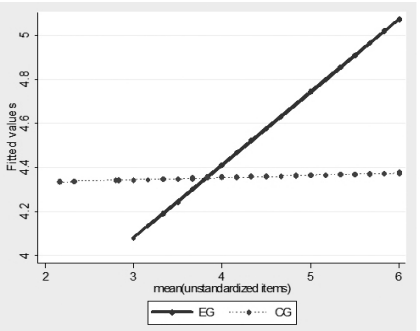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127)	비교집단 (N=110)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574	4.256	F=9.20** (df=1, 233)	F=11.99*** (df=1, 233)
	사후검사	4.523	4.225		
	변화량	-0.051	-0.031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575	4.277	F=4.06* (df=1, 233)	F=5.59* (df=1, 233)
	사후검사	4.602	4.358		
	변화량	0.027	0.081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257	3.945	F=4.65* (df=1, 233)	Not found
	사후검사	4.411	4.185		
	변화량	0.154	0.240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331	4.060	F=4.86* (df=1, 234)	Not found
	사후검사	4.441	4.199		
	변화량	0.110	0.139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192	3.963	F=7.32** (df=1, 234)	Not found
	사후검사	4.274	4.005		
	변화량	0.082	0.042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4.129	3.864	F=3.05 (df=1, 231)	Not found
	사후검사	4.217	4.011		
	변화량	0.088	0.147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4.079	3.782	F=14.00*** (df=1, 231)	F=16.37*** (df=1, 231)
	사후검사	4.170	3.970		
	변화량	0.091	0.188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362	4.053	F=2.31 (df=1, 232)	Not found
	사후검사	4.446	4.215		
	변화량	0.084	0.161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496	4.193	F=9.01** (df=1, 232)	Not found
	사후검사	4.591	4.264		
	변화량	0.095	0.071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4.177	3.885	F=8.47** (df=1, 232)	F=10.62** (df=1, 232)
	사후검사	4.138	3.963		
	변화량	-0.038	0.078		
미래에 대한확신	사전검사	4.662	4.326	F=5.26* (df=1, 232)	F=7.71** (df=1, 232)
	사후검사	4.726	4.381		
	변화량	0.063	0.055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329	4.119	F=1.83 (df=1, 221)	F=4.08* (df=1, 221)
	사후검사	4.510	4.103		
	변화량	0.181	-0.016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5.051	4.881	F=7.91** (df=1, 233)	F=9.15** (df=1, 233)
	사후검사	5.161	5.021		
	변화량	0.110	0.140		
유대감	사전검사	4.887	4.620	F=6.65* (df=1, 230)	Not found
	사후검사	5.050	4.771		
	변화량	0.163	0.136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288	4.098	F=12.94*** (df=1, 228)	F=16.07*** (df=1, 228)
	사후검사	4.315	4.071		
	변화량	0.027	-0.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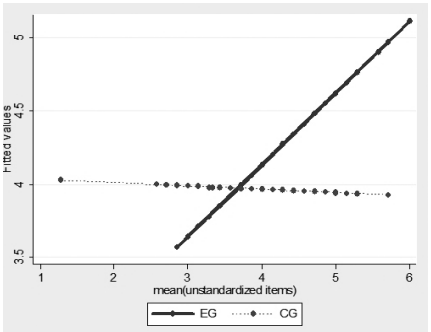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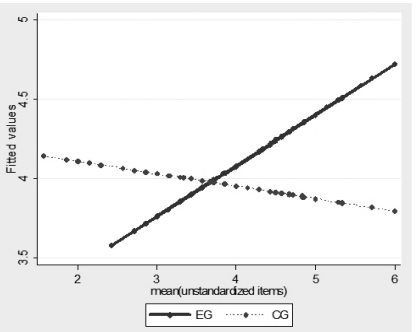
사회적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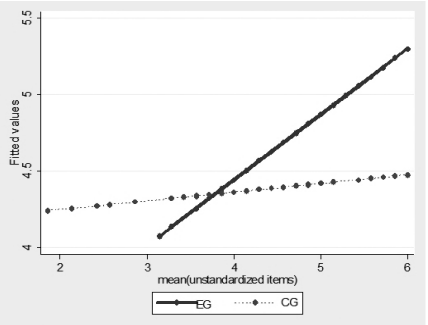
자아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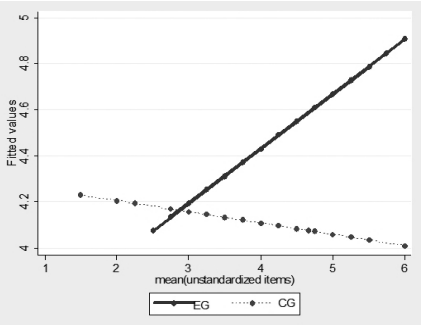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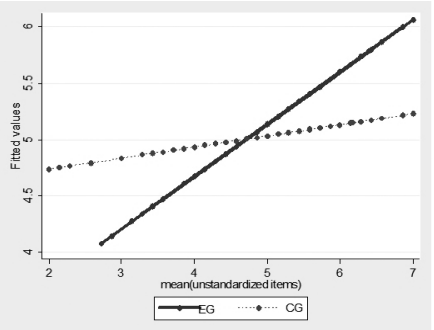
긍정적 자아정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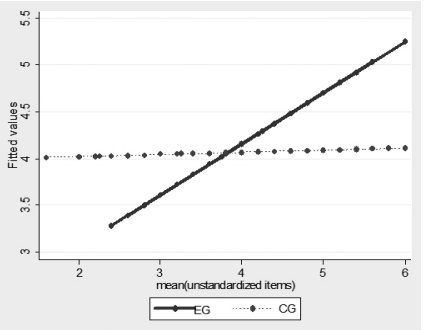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삶의 충만감



친사회적 참여

[그림 Ⅳ-4]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전체)

3)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성별 분석)

멘토집단과 비교집단 청소년을 성별 구분하여 남·여 청소년의 사전검사점수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13〉은 여자 청소년, 〈표 Ⅳ-14〉은 남자 청소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즉, 15개 분석모형 가운데, 사회적 유능감($F(1, 172)=4.61$, $p<.05$), 자아탄력성($F(1, 173)=4.67$, $p<.05$), 인지적 유능감($F(1, 172)=4.57$, $p<.05$), 행동적 유능감($F(1, 173)=6.56$, $p<.05$), 도덕적 유능감($F(1, 173)=7.83$, $p<.01$), 자기효능감($F(1, 171)=12.77$, $p<.001$), 친사회적 규범($F(1, 173)=5.67$, $p<.05$), 긍정적 자아정체감($F(1, 172)=7.05$, $p<.01$), 미래에 대한 확신($F(1, 172)=5.19$, $p<.05$), 유대감($F(1, 172) =7.51$, $p<.01$), 친사회적 참여($F(1, 171)=5.23$, $p<.05$)를 종속변수로 하는 11개의 분석모형에서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멘토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는 사회적 유능감($F(1, 172)=7.01$, $p<.01$),

자기효능감(F(1, 171)=15.95, p<.001), 자기결정력(F(1, 171)=4.93, p<.05), 긍정적 자아정체감(F(1, 172)=9.36, p<.01), 미래에 대한 확신(F(1, 172)=7.24, p<.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F(1, 165)=4.92, p<.5), 친사회적 참여(F(1, 171)=6.87, p<.01) 등 7개였다. 이와 함께 멘토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2차 함수로 나타낸 것이 [그림 Ⅳ-5]이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실험처치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분석모형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아탄력성(F(1, 55)=6.33, p<.5), 삶의 충만감(F(1, 55)=5.36, p<.05), 친사회적 참여(F(1, 53)=8.49, p<.01)를 종속변수로 하는 3개의 공분산분석 모형에서만 사후검사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유의성 역시 자아탄력성(F(1, 55)=6.89, p<.5), 삶의 충만감(F(1, 55)=6.75, p<.05), 친사회적 참여(F(1, 53)=9.77, p<.01) 등 세 개의 분석모형에서만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Ⅳ-14〉과 [그림 Ⅳ-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5], [그림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멘토집단 및 비교집단과 성별 구분 결과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전검사점수가 낮은 멘토는 멘토링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반면, 사전검사점수가 높았던 멘토는 멘토링활동을 통해 자신의 좋은 특성을 보다 강화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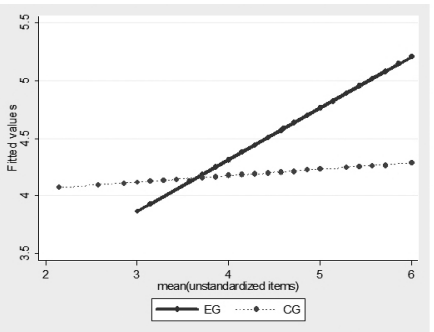
이와 같은 남녀 간의 멘토링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전검사점수와 실험처치, 그리고 성별을 통제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 성별과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나 15개의 모든 분석모형에서 성별과 실험처치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13〉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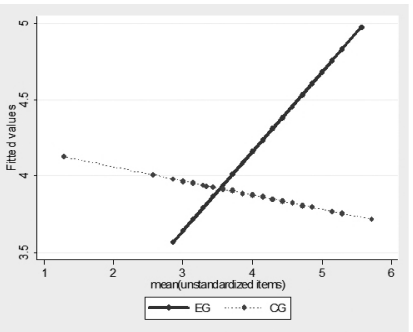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97)	비교집단 (N=79)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581	4.284	F=4.61* (df=1, 172)	F=7.01** (df=1, 172)
	사후검사	4.573	4.192		
	변화량	-0.008	-0.092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541	4.299	F=4.67* (df=1, 173)	Not found
	사후검사	4.598	4.335		
	변화량	0.057	0.036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235	3.903	F=4.57* (df=1, 172)	Not found
	사후검사	4.392	4.139		
	변화량	0.157	0.236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278	4.079	F=6.56* (df=1, 173)	Not found
	사후검사	4.419	4.130		
	변화량	0.141	0.051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157	3.937	F=7.83** (df=1, 173)	Not found
	사후검사	4.287	3.972		
	변화량	0.130	0.035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4.096	3.806	F=2.68 (df=1, 172)	Not found
	사후검사	4.197	3.943		
	변화량	0.101	0.137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4.034	3.753	F=12.77*** (df=1, 171)	F=15.95*** (df=1, 171)
	사후검사	4.180	3.879		
	변화량	0.146	0.126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330	4.059	F=3.53 (df=1, 171)	F=4.93* df=1, 171)
	사후검사	4.394	4.081		
	변화량	0.064	0.022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703	4.451	F=5.67* (df=1, 173)	Not found
	사후검사	4.759	4.418		
	변화량	0.056	-0.033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4.135	3.880	F=7.05** (df=1, 172)	F=9.36** (df=1, 172)
	사후검사	4.117	3.866		
	변화량	-0.018	-0.014		
미래에 대한확신	사전검사	4.642	4.474	F=5.19* (df=1, 172)	F=7.24** (df=1, 172)
	사후검사	4.722	4.389		
	변화량	0.080	-0.085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309	4.147	F=2.64 (df=1, 165)	F=4.92* (df=1, 165)
	사후검사	4.503	4.056		
	변화량	0.194	-0.091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5.071	4.854	F=0.24 (df=1, 173)	Not found
	사후검사	5.126	4.995		
	변화량	0.055	0.141		
유대감	사전검사	4.951	4.738	F=7.51** (df=1, 172)	Not found
	사후검사	5.101	4.759		
	변화량	0.150	0.021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292	4.116	F=5.23* (df=1, 171)	F=6.87** (df=1, 171)
	사후검사	4.315	4.052		
	변화량	0.023	-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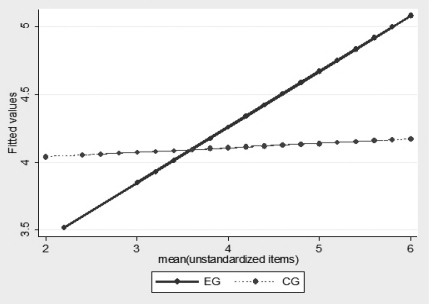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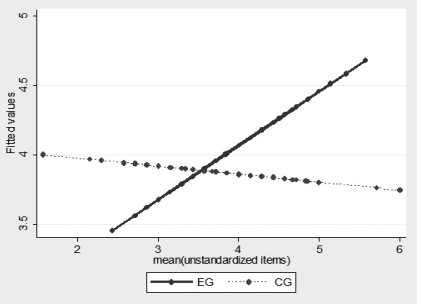
사회적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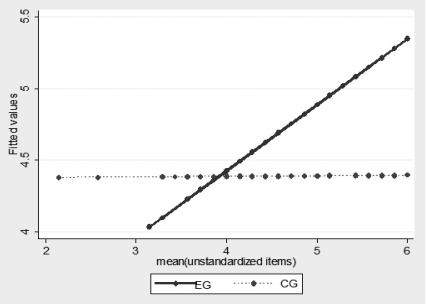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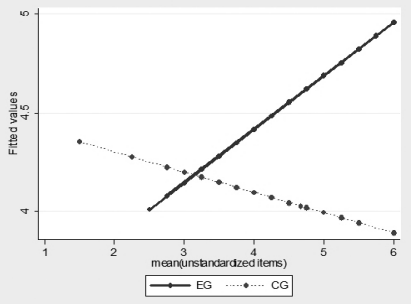
자기결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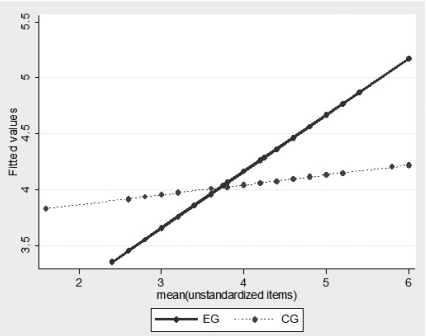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친사회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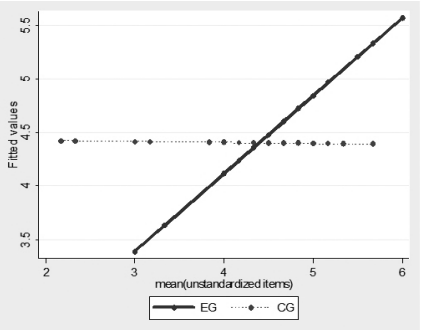
[그림 Ⅳ-5]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여학생)

〈표 IV-14〉 공분산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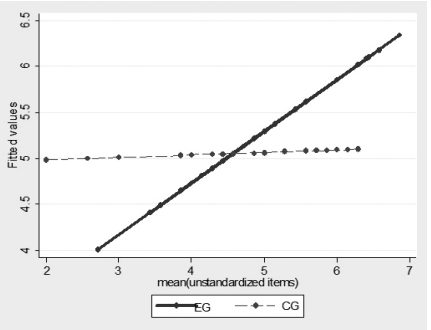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29)	비교집단 (N=30)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573	4.238	F=0.00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369	4.253		
	변화량	-0.204	0.015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707	4.239	F=6.33* (df=1, 55)	F=6.89* (df=1, 55)
	사후검사	4.632	4.406		
	변화량	-0.075	0.167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345	4.080	F=0.82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497	4.300		
	변화량	0.152	0.220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534	4.361	F=0.04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529	4.050		
	변화량	-0.005	-0.311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331	4.047	F=0.25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241	4.093		
	변화량	-0.090	0.046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4.270	4.050	F=0.64 (df=1, 55)	Not found
	사후검사	4.286	4.100		
	변화량	0.016	0.050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4.232	3.890	F=0.73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138	4.143		
	변화량	-0.094	0.253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469	4.067	F=0.03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621	4.460		
	변화량	0.152	0.393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621	4.056	F=3.27 (df=1, 55)	Not found
	사후검사	4.713	4.276		
	변화량	0.092	0.220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4.317	3.954	F=0.03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211	4.163		
	변화량	-0.106	0.209		
미래에 대한 확신	사전검사	4.729	3.957	F=1.13 (df=1, 56)	Not found
	사후검사	4.739	4.319		
	변화량	0.010	0.362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366	4.054	F=3.12 (df=1, 52)	Not found
	사후검사	4.500	4.158		
	변화량	0.134	0.104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5.009	5.014	F=5.36* (df=1, 55)	F=6.75* (df=1, 55)
	사후검사	5.300	5.067		
	변화량	0.291	0.053		
유대감	사전검사	4.713	4.322	F=0.22 (df=1, 55)	Not found
	사후검사	4.869	4.761		
	변화량	0.156	0.439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336	4.050	F=8.49** (df=1, 53)	F=9.77** (df=1, 53)
	사후검사	4.329	4.120		
	변화량	-0.007	0.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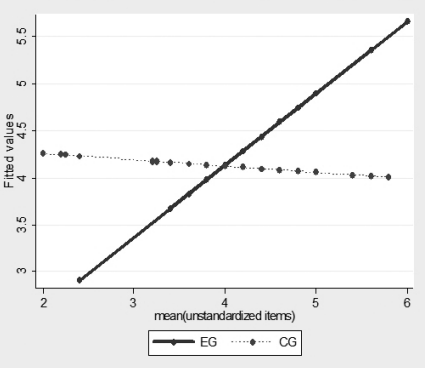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자아탄력성



삶의 충만감



친사회적 참여

[그림 Ⅳ-6]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남학생)

4)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도 · 농별 분석)

멘토와 비교집단 청소년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점수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은 〈표 Ⅳ-15〉, 농촌지역은 〈표 Ⅳ-16〉와 같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도시지역의 경우 행동적 유능감과 유대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제외한 13개의 분석모형에서 사전검사점수의 영향력을 감안한 후에도 멘토집단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처치의 주효과는 사회적 유능감($F(1, 133)=6.87$, $p<.01$), 자아탄력성($F(1, 134)=7.62$, $p<.01$), 인지적 유능감($F(1, 134)=4.78$, $p<.05$), 도덕적 유능감($F(1, 134)=4.72$, $p<.05$), 정서적 유능감($F(1, 131)=7.21$, $p<.01$), 자기효능감($F(1, 132)=6.37$, $p<.05$), 친사회적 규범($F(1, 131)=5.55$, $p<.05$), 긍정적 자아정체감($F(1, 132)=11.00$, $p<.01$), 미래에 대한 확신($F(1, 132)=7.92$, $p<.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F(1, 127)=7.46$, $p<.01$), 삶의 충만감($F(1, 133)=4.91$, $p<.05$), 친사회적 참여($F(1, 129)=10.17$, $p<.01$)를 종속변수로 하는 공분산분석모형에서 확인되었다.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사회적 유능감($F(1, 133)=8.11$, $p<.01$), 정서적 유능감($F(1, 131)=7.69$, $p<.01$), 자기효능감($F(1, 132)=8.29$, $p<.01$), 자기결정력($F(1, 132)=8.79$, $p<.01$), 친사회적 규범($F(1, 131)=6.72$, $p<.05$), 긍정적 자아정체감($F(1, 132)=13.32$, $p<.001$), 미래에 대한 확신($F(1, 132)=10.92$, $p<.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F(1, 127)=9.82$, $p<.01$), 삶의 충만감($F(1, 133)=5.25$, $p<.05$), 유대감($F(1, 130)=4.17$, $p<.05$), 친사회적 참여($F(1, 129)=13.43$, $p<.001$)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검사점수가 높았던 멘토들은 한결같이 멘토링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행동적 유능감($F(1, 97)=5.87$, $p<.05$), 도덕적 유능감($F(1, 97)=3.98$, $p<.05$), 정서적 유능감($F(1, 96)=4.56$, $p<.05$), 자기효능감($F(1, 95)=6.95$, $p<.01$), 친사회적 규범($F(1, 96)=7.19$, $p<.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F(1, 91)=8.36$, $p<.01$), 유대감($1, 96)=5.50$, $p<.05$)을 종속변수로 하는 7개의 분석모형에서만 실험처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사전검사점수의 영향력을 감안한 후에도 멘토집단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사전검사-실험처치 간 상호작용효과는 사회적 유능감($F(1, 96)=4.44$, $p<.05$), 자기효능감($F(1, 95)=7.57$, $p<.01$), 친사회적 규범($F(1, 96)=4.26$, $p<.05$), 친사회적 참여($F(1, 95)=4.39$, $p<.05$)를 종속변수로 하는 4개의 공분산분석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림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경우 이전 분석에서의 상호작용효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사회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참여가 종속변수인 분석에서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이들의 예측 사후검사점수는 낮아진 반면, 멘토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사후검사 점수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비교집단의 사회적 유능감, 자기효능

감, 친사회적 참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반면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멘토는 향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사회적 규범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사후검사점수가 높았던 반면 멘토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사후검사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측정 문항의 내용('우리사회의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을 고려할 때 친사회적 규범 정도가 낮았던 청소년은 멘토로 활동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친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처음부터 높았던 청소년은 멘토링활동을 통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일부 해석된다. 또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전검사점수가 높았던 청소년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낭만적 혹은 당위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실제 멘토링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봉사활동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보다 현실적인 자기인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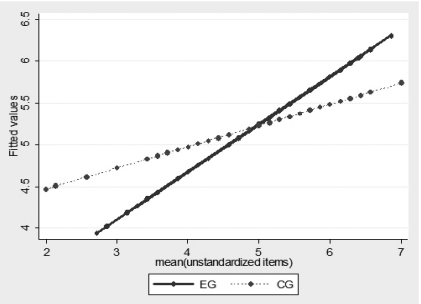
도·농 지역 간에 멘토링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5개의 사후검사점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점수, 실험처치, 지역특성을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넣은 후 사전검수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어떤 분석모형에서도 상호작용변수의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멘토링 효과가 도·농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Ⅳ-15〉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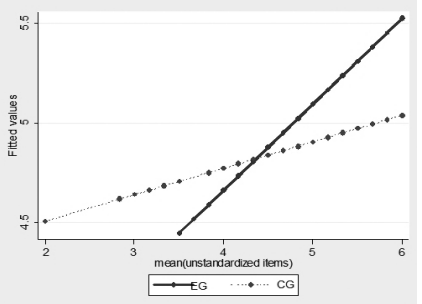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68)	비교집단 (N=69)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646	4.155	F=6.87** (df=1, 133)	F=8.11** (df=1, 133)
	사후검사	4.641	4.354		
	변화량	-0.005	0.199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691	4.166	F=7.62** (df=1, 134)	Not found
	사후검사	4.875	4.435		
	변화량	0.184	0.269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291	3.864	F=4.78* (df=1, 134)	Not found
	사후검사	4.579	4.270		
	변화량	0.288	0.406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362	3.995	F=0.73 (df=1, 134)	Not found
	사후검사	4.520	4.325		
	변화량	0.158	0.330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259	3.913	F=4.72* (df=1, 134)	Not found
	사후검사	4.438	4.130		
	변화량	0.179	0.217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4.144	3.734	F=7.21** (df=1, 131)	F=7.69** (df=1, 131
	사후검사	4.313	4.130		
	변화량	0.169	0.396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4.136	3.797	F=6.37* (df=1, 132)	F=8.29** (df=1, 132)
	사후검사	4.313	4.004		
	변화량	0.177	0.207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418	4.052	F=7.91** (df=1, 132)	F=8.79** (df=1, 132)
	사후검사	4.524	4.301		
	변화량	0.106	0.249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873	4.372	F=5.55* (df=1, 131)	F=6.72* (df=1, 131)
	사후검사	4.917	4.613		
	변화량	0.044	0.241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4.277	3.816	F=11.00** (df=1, 132)	F=13.32*** (df=1, 132)
	사후검사	4.342	4.091		
	변화량	0.065	0.275		
미래에 대한확신	사전검사	4.840	4.313	F=7.92** (df=1, 132)	F=10.92** (df=1, 132)
	사후검사	4.937	4.501		
	변화량	0.097	0.188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405	4.032	F=7.46** (df=1, 127)	F=9.82** (df=1, 127)
	사후검사	4.571	4.243		
	변화량	0.166	0.211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5.161	4.830	F=4.91* (df=1, 133)	F=5.25* (df=1, 133)
	사후검사	5.338	5.187		
	변화량	0.177	0.357		
유대감	사전검사	5.109	4.672	F=3.19 (df=1, 130)	F=4.17* (df=1, 130)
	사후검사	5.124	4.877		
	변화량	0.015	0.205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318	4.019	F=10.17** (df=1, 129)	F=13.43*** (df=1, 129)
	사후검사	4.570	4.193		
	변화량	0.252	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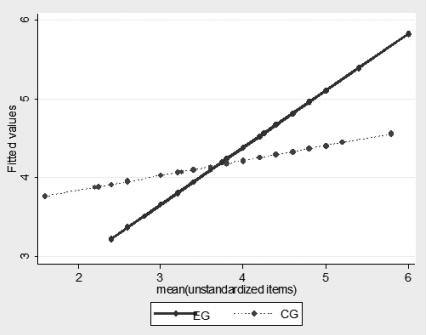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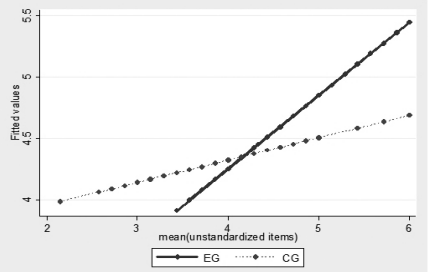
삶의 충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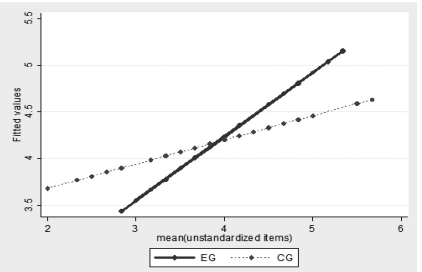
유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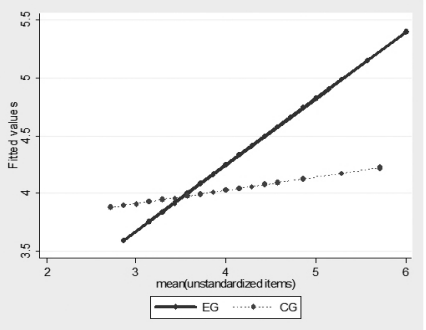
친사회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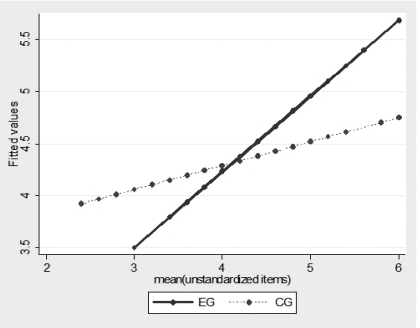
사회적 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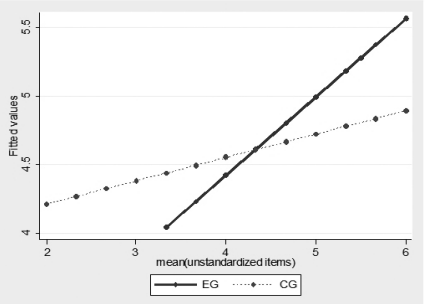
정서적 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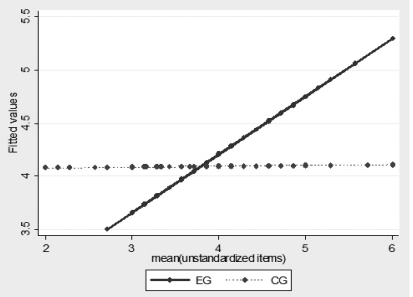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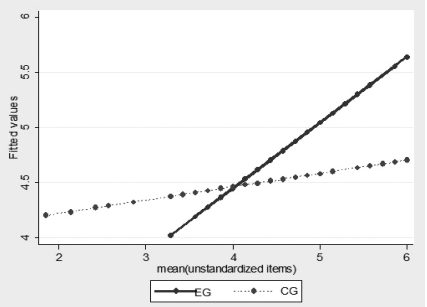
자기결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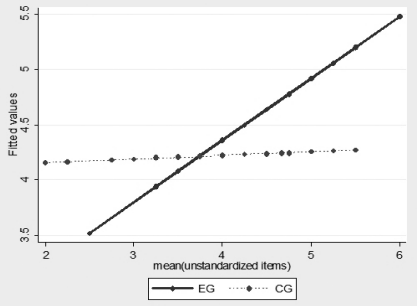
친사회적 규범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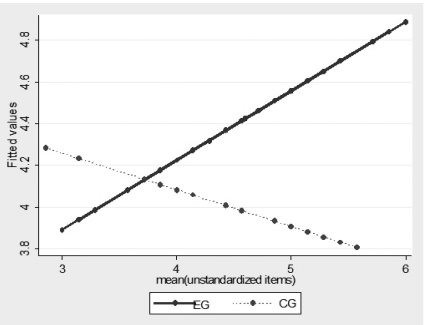
[그림 IV-7]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도시))

〈표 IV-16〉 공분산 분석 결과: 멘토, 비교집단(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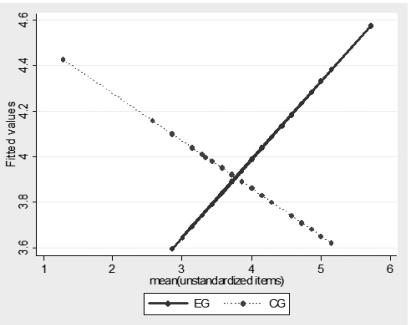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59)	비교집단 (N=41)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492	4.425	F=3.05 (df=1, 96)	F=4.44* (df=1, 96)
	사후검사	4.387	4.008		
	변화량	-0.105	-0.417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441	4.463	F=0.17 (df=1, 97)	Not found
	사후검사	4.288	4.228		
	변화량	-0.153	-0.235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217	4.085	F=1.37 (df=1, 96)	Not found
	사후검사	4.217	4.044		
	변화량	0	-0.041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294	4.168	F=5.87* (df=1, 97)	Not found
	사후검사	4.350	3.988		
	변화량	0.056	-0.180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115	4.049	F=3.98* (df=1, 97)	Not found
	사후검사	4.085	3.794		
	변화량	-0.030	-0.255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4.127	4.088	F=4.56* (df=1, 96)	Not found
	사후검사	4.095	3.760		
	변화량	-0.032	-0.328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4.015	3.755	F=6.95** (df=1, 95)	F=7.57** (df=1, 95)
	사후검사	3.993	3.871		
	변화량	-0.022	0.116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298	4.055	F=2.32 (df=1, 96)	Not found
	사후검사	4.346	4.015		
	변화량	0.048	-0.040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469	4.293	F=7.19** (df=1, 96)	F=4.26* (df=1, 96)
	사후검사	4.554	4.008		
	변화량	0.085	-0.285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4.063	4.000	F=0.99 (df=1, 97)	Not found
	사후검사	3.891	3.746		
	변화량	-0.172	-0.254		
미래에 대한확신	사전검사	4.460	4.348	F=2.71 (df=1, 97)	Not found
	사후검사	4.472	4.178		
	변화량	0.012	-0.170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229	4.284	F=8.36** (df=1, 91)	Not found
	사후검사	4.418	3.850		
	변화량	0.189	-0.434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4.923	4.966	F=1.12 (df=1, 97)	Not found
	사후검사	4.956	4.742		
	변화량	0.033	-0.224		
유대감	사전검사	4.649	4.545	F=5.50* (df=1, 96)	Not found
	사후검사	4.955	4.593		
	변화량	0.306	0.048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283	4.229	F=3.48 (df=1, 95)	F=4.39* (df=1, 95)
	사후검사	4.017	3.815		
	변화량	-0.266	-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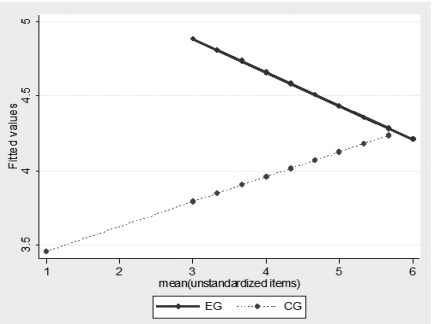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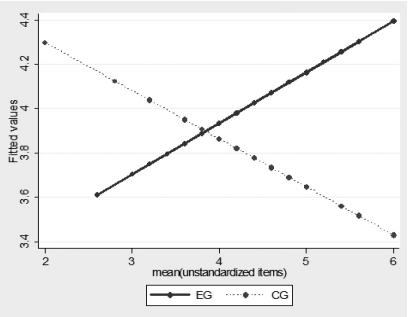
사회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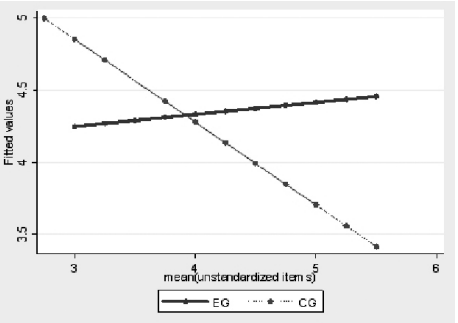


친사회적 참여

[그림 IV-8]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멘토, 비교집단(농촌)

5) 멘토와 비교집단 차이검증(학교급 간 분석)

멘토의 중·고·대학생[11] 학교급별 멘토링 효과를 비교하였다. 사전검사점수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17〉, 〈표 IV-18〉, 〈표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중학생멘토의 경우 사전검사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에 있어서 사전검사 점수와 실험처치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F(1, 59)=4.24$, $p<.05$). 즉, [그림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집단의 경우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은 사전·사후검사점수가 뚜렷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멘토의 경우 완만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대조를 이룬다. 특히, 사전검사점수가 4점 이하인 경우 멘토의 사후검사점수 예측치는 비교집단에 비해 낮으나 4점 이상인 경우에는 반대로 멘토의 사후검사점수 예측치가 높았다. 멘토(41명)와 비교집단(25명)의 수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학생 멘토의 경우 멘토링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중학생(긍정적 행동 인정)

11) 대학원생이 멘토집단에 1명, 비교집단에 2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대학생'으로 통칭하였다.

〈표 IV-17〉 공분산 분석 결과: 중학생 멘토, 비교집단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41)	비교집단 (N=25)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425	4.366	F=0.73 (df=1, 63)	Not found
	사후검사	4.160	4.314		
	변화량	-0.265	-0.052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362	4.267	F=0.27 (df=1, 63)	Not found
	사후검사	4.272	4.360		
	변화량	-0.090	0.093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195	3.928	F=0.01 (df=1, 63)	Not found
	사후검사	4.229	4.184		
	변화량	0.034	0.256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243	4.187	F=0.00 (df=1, 63)	Not found
	사후검사	4.337	4.333		
	변화량	0.094	0.146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020	3.992	F=0.18 (df=1, 63)	Not found
	사후검사	4.034	3.960		
	변화량	0.014	-0.032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3.954	3.687	F=0.57 (df=1, 62)	Not found
	사후검사	4.057	3.913		
	변화량	0.103	0.226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3.943	3.766	F=0.18 (df=1, 62)	Not found
	사후검사	3.850	3.926		
	변화량	-0.093	0.160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185	4.184	F=0.16 (df=1, 62)	Not found
	사후검사	4.254	4.192		
	변화량	0.069	0.008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471	4.667	F=0.00 (df=1, 62)	Not found
	사후검사	4.650	4.640		
	변화량	0.179	-0.027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3.976	3.776	F=0.26 (df=1, 62)	Not found
	사후검사	3.985	3.898		
	변화량	0.009	0.122		
미래에 대한확신	사전검사	4.425	4.560	F=0.00 (df=1, 62)	Not found
	사후검사	4.540	4.549		
	변화량	0.115	-0.01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081	4.160	F=3.69 (df=1, 59)	F=4.24* (df=1, 59)
	사후검사	4.338	4.177		
	변화량	0.257	0.017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4.864	4.857	F=0.47 (df=1, 63)	Not found
	사후검사	5.146	4.962		
	변화량	0.282	0.105		
유대감	사전검사	4.642	4.778	F=0.27 (df=1, 61)	Not found
	사후검사	4.911	4.867		
	변화량	0.269	0.089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099	3.858	F=0.00 (df=1, 61)	Not found
	사후검사	4.176	4.092		
	변화량	0.077	0.234		

* $p < .05$

다음으로, 고등학생 멘토의 경우에도 실험처치의 주효과 혹은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는 15개 종속변수 가운데 3개에 불과하였다. 〈표 Ⅳ-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유능감'은 실험처치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으나($F(1, 79)=4.18$, $p<.05$)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멘토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멘토링활동의 효과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하였으며($F(1, 78)=4.05$, $p<.05$), 실험처치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Ⅳ-10]과 같이 '자기효능감'은 멘토와 비교집단 모두 양의 방향을 보이나 멘토집단의 변화 기울기가 훨씬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전검사점수가 대략 3.5점 이하인 경우 멘토집단의 사후검사 예측치는 비교집단보다 낮으나 3.5점인 경우를 기점으로 멘토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사후검사 예측치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여 사전검사점수가 높아질수록 두 집단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 멘토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사전검사점수가 일정 정도(3.5점) 이상인 경우에는 멘토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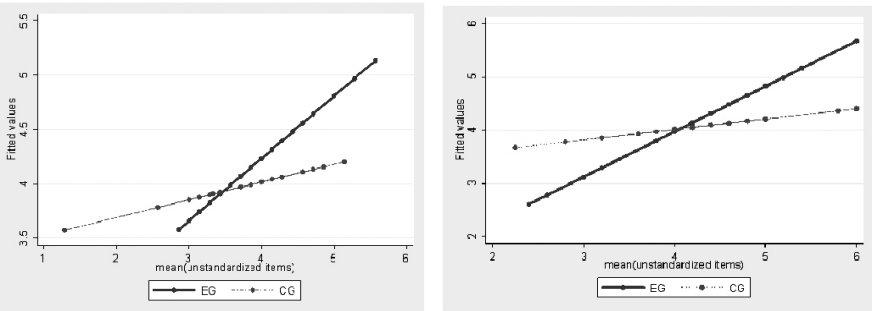
'친사회적 참여'는 실험처치의 주효과($F(1, 76)=7.70$, $p< .01$)와 사전검사의 상호작용 효과($F(1, 76)=8.67$, $p<.01$) 모두 유의하였다. [그림 Ⅳ-10]과 같이 '친사회적 참여'에 있어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사전검사점수가 대략 4점 이하인 경우 멘토집단의 사후검사점수 예측치는 비교집단보다 낮았으나 4점 이상인 경우에는 멘토집단의 사후검사점수 예측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고등학생 멘토에 있어 친사회적 참여라는 멘토링 효과는 사전검사점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사전검사 점수가 대략 4점 이상일 때 멘토집단이 비교우위를 나타내었다.

〈표 IV-18〉 공분산 분석 결과: 고등학생 멘토, 비교집단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41)	비교집단 (N=41)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573	4.401	F=4.18*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634	4.331		
	변화량	0.061	-0.070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553	4.455	F=3.83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744	4.431		
	변화량	0.191	-0.024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239	4.040	F=1.05 (df=1, 78)	Not found
	사후검사	4.410	4.220		
	변화량	0.171	0.180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208	4.185	F=2.90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350	4.095		
	변화량	0.142	-0.090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171	3.990	F=2.84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312	4.009		
	변화량	0.141	0.019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4.150	3.862	F=0.54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202	4.028		
	변화량	0.052	0.166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3.927	3.858	F=3.12 (df=1, 78)	F=4.05* (df=1, 78)
	사후검사	4.192	3.993		
	변화량	0.265	0.135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254	4.190	F=0.11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356	4.268		
	변화량	0.102	0.078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683	4.585	F=1.23 (df=1, 78)	Not found
	사후검사	4.642	4.408		
	변화량	-0.041	-0.177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4.057	3.920	F=0.62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018	3.865		
	변화량	-0.039	-0.055		
미래에 대한확신	사전검사	4.676	4.488	F=3.06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895	4.498		
	변화량	0.219	0.010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338	4.162	F=1.24 (df=1, 73)	Not found
	사후검사	4.360	4.077		
	변화량	0.022	-0.085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4.921	4.875	F=0.93 (df=1, 79)	Not found
	사후검사	4.829	5.024		
	변화량	-0.092	0.149		
유대감	사전검사	4.942	4.923	F=0.98 (df=1, 78)	Not found
	사후검사	5.041	4.886		
	변화량	0.099	-0.037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287	4.211	F=7.70** (df=1, 76)	F=8.67** (df=1, 76)
	사후검사	4.229	4.054		
	변화량	-0.058	-0.157		

* p <.05 ** p <.01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참여

[그림 IV-10]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고등학생 멘토, 비교집단

마지막으로, 대학생 멘토의 경우 〈표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 멘토와는 달리 실험처치의 주효과와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15개 종속변수 가운데 사회적 유능감(F(1, 85)=12.06, p<.001), 인지적 유능감(F(1, 84)=4.61, p<.05), 도덕적 유능감(F(1, 85)=9.84, p<.01), 정서적 유능감(F(1, 82)=5.29, p<.05), 자기효능감(F(1, 83)=5.02, p<.05), 친사회적 규범(F(1, 85)=14.08, p<.001), 긍정적 자아정체감(F(1, 84)=5.78, p<.05), 미래에 대한 확신(F(1, 84)=5.85, p<.05),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F(1, 82)=15.30, p<.001) 및 유대감(F(1, 83)=4.80, p<.05)을 종속변수로 한 10개의 분석모형에서 실험처치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점수 차이만을 고려할 때 비교집단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실험처치의 주효과가 유의했던 10개의 분석모형 가운데 '자아탄력성', '인지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규범',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유대감'의 경우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대비 사후검사의 긍정적 향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 효과가 모든 대학생 멘토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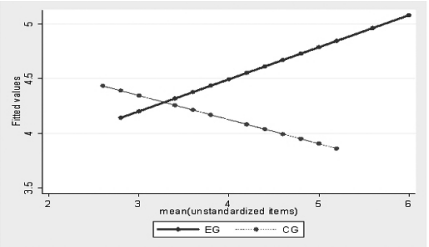
멘토집단의 경우 인지적 유능감($F(1, 84)=7.43$, $p<.05$), 정서적 유능감($F(1, 82)=6.98$, $p<.01$), 자기효능감($F(1, 83)=7.35$, $p<.01$), 자기결정력($F(1, 83)=4.01$, $p<.05$), 긍정적 자아정체감($F(1, 84)=7.73$, $p<.01$), 미래에 대한 확신($F(1, 84)=8.83$, $p<.01$), 삶의 충만감($F(1, 84)=5.46$, $p<.05$), 유대감($F(1, 83)=7.87$, $p<.01$), 친사회적 참여($F(1, 83)=5.64$, $p<.05$) 등 9개 분석모형에서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그림 Ⅳ-11]와 같이 사전검사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멘토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된 반면 사전검사점수가 높은 경우는 멘토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멘토링효과가 모든 대학생 멘토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사전검사점수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던 앞의 분석모형과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표 Ⅳ-19〉 공분산 분석 결과: 대학생 멘토, 비교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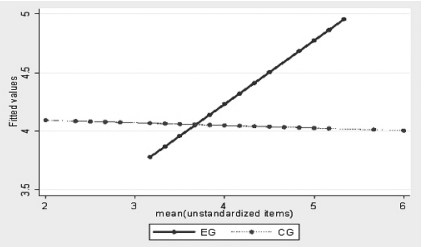
변수	사전/사후	멘토집단 (N=43)	비교집단 (N=44)	ANCOVA분석결과	
				집단효과	집단*사전검사
사회적 유능감	사전검사	4.705	4.058	F=12.06*** (df=1, 85)	Not found
	사후검사	4.753	4.075		
	변화량	0.048	0.017		
자아 탄력성*	사전검사	4.784	4.117	F=8.69** (df=1, 85)	Not found
	사후검사	4.792	4.288		
	변화량	0.008	0.171		
인지적 유능감	사전검사	4.314	3.868	F=4.61* (df=1, 84)	F=7.43** (df=1, 84)
	사후검사	4.586	4.155		
	변화량	0.272	0.287		
행동적 유능감	사전검사	4.511	3.871	F=2.60 (df=1, 85)	Not found
	사후검사	4.629	4.220		
	변화량	0.118	0.349		
도덕적 유능감	사전검사	4.355	3.923	F=9.84** (df=1, 85)	Not found
	사후검사	4.468	4.027		
	변화량	0.113	0.104		

정서적유능감	사전검사	4.269	3.969	F=5.29* (df=1, 82)	F=6.98** (df=1, 82)
	사후검사	4.368	4.004		
	변화량	0.099	0.035		
자기 효능감	사전검사	4.325	3.718	F=5.02* (df=1, 83)	F=7.35** (df=1, 83)
	사후검사	4.432	3.935		
	변화량	0.107	0.217		
자기 결정력	사전검사	4.609	3.847	F=2.56 (df=1, 83)	F=4.01* (df=1, 83)
	사후검사	4.709	4.127		
	변화량	0.100	0.280		
친사회적 규범 (동의)	사전검사	4.871	3.932	F=14.08*** (df=1, 85)	Not found
	사후검사	4.977	4.220		
	변화량	0.106	0.288		
긍정적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4.452	3.913	F=5.78* (df=1, 84)	F=7.73** (df=1, 84)
	사후검사	4.384	4.090		
	변화량	-0.068	0.177		
미래에 대한확신	사전검사	4.867	4.042	F=5.85* (df=1, 84)	F=8.83** (df=1, 84)
	사후검사	4.734	4.175		
	변화량	-0.133	0.133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사전검사	4.511	4.060	F=15.30*** (df=1, 82)	Not found
	사후검사	4.773	4.068		
	변화량	0.262	0.008		
삶의 충만감	사전검사	5.324	4.900	F=3.77 (df=1, 84)	F=5.46* (df=1, 84)
	사후검사	5.457	5.052		
	변화량	0.133	0.152		
유대감	사전검사	5.083	4.261	F=4.80* (df=1, 83)	F=7.87** (df=1, 83)
	사후검사	5.178	4.610		
	변화량	0.095	0.349		
친사회적 참여	사전검사	4.483	4.124	F=3.40 (df=1, 83)	F=5.64* (df=1, 83)
	사후검사	4.521	4.027		
	변화량	0.038	-0.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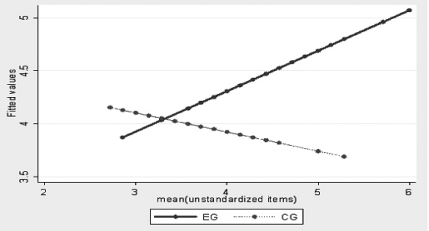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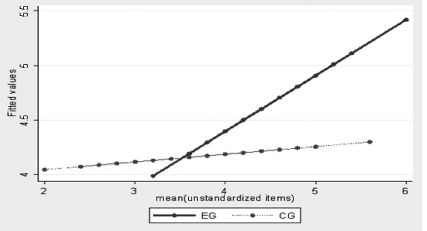
인지적 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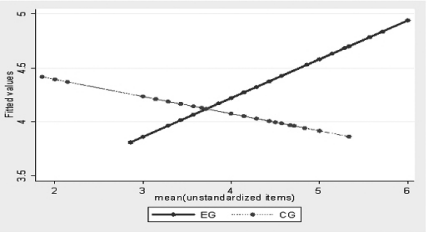
정서적 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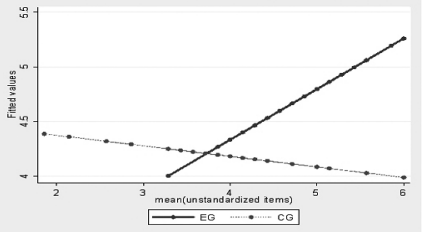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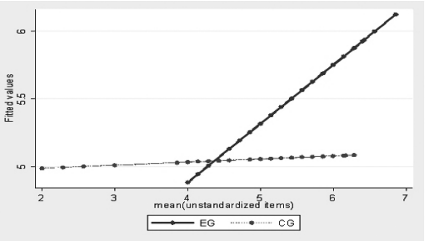
자기결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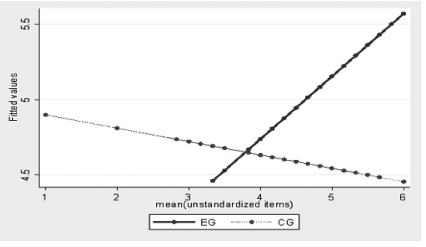
긍정적 자아정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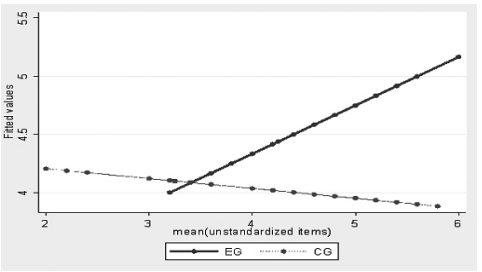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확신



삶의 충만감



유대감



친사회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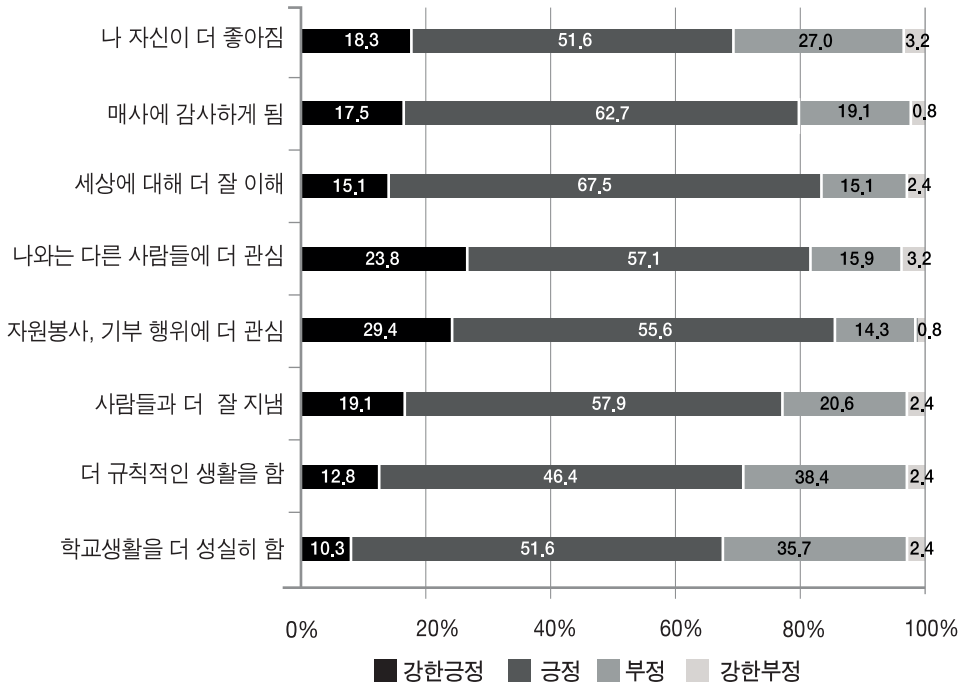
[그림 IV-11] 사전-처치 간 상호작용효과: 대학생 멘토, 비교집단

6) 멘토의 주관적인 멘토링 효과

멘토링의 효과에 대해 멘토들은 주관적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멘토링 이후의 변화에 대해 8개 문장(① 나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②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③ 세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④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⑤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행위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⑥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있다, ⑦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⑧ 학교생활을 더 성실히 하고 있다)으로 구분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④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6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으며 4개 항목의 경우 80%를 상회하였다. 특히, '자원봉사 및 기부행위에 대한 관심의 증가' 는 84.9%가 '그렇다(매우 포함)' 라고 응답하였으며, '세상에 대해 더 잘 이해(82.5%)',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관심(81.0%)',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됨(80.2%)' 의 경우 모두 8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멘토링활동 이후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되었다' 77.0%,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역시 69.8%로 '인식의 영역' 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행동적인 영역' 즉,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생활을 더 성실히 하고 있다' 의 경우 동의율은 각각 59.2%, 61.9%로 8개 항목 중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멘토로서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멘토링활동이 자기 자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키고 사회성을 증대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느끼는 등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일부 경험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IV-12] 멘토링 효과성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 판단

이와 함께 멘토링 효과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인 평가가 실제 프로그램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멘토링활동 효과성 검증에 사용하였던 15개 변수를 종속변수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 판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2] 〈표 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멘토링 효과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 판단이 15개의 종속변수 모두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b=.332, p〈.01), 자아탄력성(b=.612, p〈.001), 인지적 유능감(b=.550, p〈.001), 행동적 유능감(b=.621, p〈.001), 도덕적 유능감(b=.521, p〈.001), 정서적 유능감(b=.604, p〈.001), 자기효능감(b=.539, p〈.001), 자기결정력(b=.749, p〈.001), 친사회적 규범(b=.676, p〈.001), 긍정적 자아정체감(b=.696, p〈.001), 미래에 대한 확신(b=.673, p〈.0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b=.948, p〈.001), 삶의 충만감(b=.739, p〈.001), 유대감(b=.664, p〈.001), 친사회적 참여(b=.889, p〈.001)를 측정한 사후검사점수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전검사점수, 성별 및 경제적 상황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 판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사전-사후검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멘토링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 측정에 사용된 8개 문항은 [그림 IV-12]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문항들의 Cornbach's 알파값은 .89로서 내적일관성 정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검사점수, 성별 및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표 Ⅳ-20〉 멘토의 주관적인 판단과 사후검사점수의 관련성

종속변수(사후검사점수)	B	SE
사회적 유능감	.332**	.109
자아탄력성	.612***	.127
인지적 유능감	.550***	.116
행동적 유능감	.621***	.118
도덕적 유능감	.521***	.114
정서적 유능감	.604***	.122
자기효능감	.539***	.103
자기결정력	.749***	.124
친사회적 규범	.676***	.121
긍정적 자아정체감	.696***	.119
미래에 대한 확신	.673***	.136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948***	.139
삶의 충만감	.739***	.160
유대감	.664***	.110
친사회적 참여	.889***	.138

*p 〈.05 **p 〈.01 *** p 〈.001
주: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사전검사점수는 통제변인임.

7) 멘토에 대한 멘토링 효과성 관련 요인

멘토링활동이 참여자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 못지않게 어떤 요인들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Ⅳ-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개의 영향요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멘토로서의 자질'이었다.[13] 멘토로서의 자질은 '사회적 유능감(b=.536, p〈.001)', '자아탄력성(b=.600, p〈.001)', '인지적 유능감(b=.580, p〈.001)', '행동적 유능감(b=.693, p〈.001)', '도덕적 유능감(b=.396, p〈.01)', '정서적 유능감(b=.700, p〈.001)', '자기효능감(b=.588, p〈.001)', '자기결정력(b=.819, p〈.001)', '친사회적 규범(b=.580, p〈.001)', '긍정적 자아정체감(b=.699, p〈.001)', '미래에 대한 확신(b=.603, p〈.0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b=.933, p〈.001)', '삶의 충만감(b=.546, p〈.01)', '유대감(b=.574, p〈.001)', '친사회적 참여(b=.485, p〈.01)' 등 15개 종속변수 모두와 정적관계에 있고 통계적 유의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13) 이 연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만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킨 상태에서 각 독립변수가 각각의 종속변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표 Ⅳ-21〉는 총 150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로서, 제시된 숫자는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감안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독립변수들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 보인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표 Ⅳ-21〉 효과적인 멘토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멘토차원

IV \ DV (사후검사)	멘토링 빈도	멘토링 시간 (1회 평균)	멘티와의 관계지속 희망정도	멘티-멘토 유사성	멘토에 대한 멘티 태도	멘토로서 경험유무	멘토로서 자질	멘토 교육내용 (주제 개수)	멘토 교육시간	기관과의 의사소통 빈도
사회적 유능감	-.229***	.028	.144**	.158	.132	-.050	.536***	.075***	.139***	.113*
자아탄력성	-.188**	.007	.162*	.245	.471***	-.086	.600***	.099***	.133**	.059
인지적 유능감	-.144*	-.014	.097	.155	.385***	-.149*	.580***	.066**	.121**	.057
행동적 유능감	-.095	-.027	.096	-.010	.257*	-.110	.693***	.059*	.119**	.020
도덕적 유능감	-.139*	-.008	.165**	.216	.378***	-.085	.396**	.047*	.094*	.093
정서적 유능감	-.137*	-.003	.069	.157	.269*	-.144	.700***	.056*	.078	.015
자기효능감	-.117*	-.028	.078	.071	.246*	-.047	.588***	.069**	.093*	.043
자기결정력	-.105	-.055	.040	.150	.414***	-.035	.819***	.061*	.078	-.002
친사회적 규범	-.064	.048	.186**	.026	.303*	-.064	.580***	.032	.033	-.069
긍정적 자아정체감	-.134	-.010	.091	.218	.352**	-.092	.699***	.053*	.060	-.020
미래에 대한 확신	-.055	-.010	.087	-.040	.332**	.013	.603***	.071*	-.000	-.088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014	-.007	.121	.208	.426**	-.170*	.933***	.086**	.111*	.031
삶의 충만감	-.041	-.039	.164*	.271	.280	-.140	.546**	.048	.070	-.016
유대감	.041	-.013	.120*	.016	.254*	-.123	.574***	.071**	.061	-.001
친사회적 참여	-.002	.059	.180*	.138	.415**	-.092	.485**	.026	.026	-.001

* p <.05 ** p <.01 *** p <.001

두 번째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영향 요인은 '멘토에 대한 멘티의 태도'이다. 이 요인은 '자아탄력성(b=.471, p<.001)', '인지적 유능감(b=.385, p<.001)', '행동적 유능감(b=.257, p<.05)', '도덕적 유능감(b=.378, p<.001)', '정서적 유능감(b=.269, p<.05)', '자기효능감(b=.246, p<.05)', '자기결정력(b=.414, p<.001)', '친사회적 규범(b=.303, p<.05)', '긍정적 자아정체감(b=.352, p<.01)', '미래에 대한 확신(b=.332, p<.01)',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b=.426, p<.01)', '유대감(b=.254, p<.001)', '친사회적 참여(b=.415, p<.01)' 등 13개 항목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멘토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멘토 교육 내용'의 경우 '사

회적 유능감(b=.075, p<.001)', '자아탄력성(b=.099, p<.001)', '인지적 유능감(b=.066, p<.01)', '행동적 유능감(b=.059, p<.05)', '도덕적 유능감(b=.047, p<.05)', '정서적 유능감(b=.056, p<.05)', '자기효능감(b=.069, p<.01)', '자기결정력(b=.061, p<.05)', '긍정적 자아정체감(b=.053, p<.05)', '미래에 대한 확신(b=.071, p<.05)',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b=.086, p<.01)', '유대감(b=.071, p<.01)'에 있어서 사후검사점수 예측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멘토교육에서 다루어진 내용 뿐 아니라 '멘토교육 시간' 자체도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과 관련하여 중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멘토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 유능감(b=.536, p<.001)', '자아탄력성(b=.133, p<.01)', '인지적 유능감(b=.121, p<.01)', '행동적 유능감(b=.119, p<.01)', '도덕적 유능감(b=.094, p<.05)', '자기효능감(b=.093, p<.05)',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b=.111, p<.05)'에 있어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멘티, 멘토의 관계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멘티와의 관계지속에 대한 희망정도'는 '사회적 유능감(b=.144, p<.01)', '자아탄력성(b=.162, p<.05)', '도덕적 유능감(b=.165, p<.01)', '친사회적 규범(b=.186, p<.01)', '삶의 충만감(b=.164, p<.05)', '유대감(b=.120, p<.05)', '친사회적 참여(b=.180, p<.05)'와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교육 내용 및 시간과는 달리 '기관과의 의사소통 빈도'나 '멘토로서의 경험 유무'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정도가 제한적이었다. 전자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b=.113, p<.05)'만 유의한 관계에 있었고, 후자는 '인지적 유능감(b=-.149, p<.05)'과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b=-.170, p<.05)'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었으나 관계의 방향이 모두 '음'의 방향이었다. 즉, 기관과의 의사소통 빈도나 멘토로서의 경험 유무는 멘토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 요인이 아닐 뿐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과 부적관계를 보인 또 다른 영향 요인은 '멘토링 빈도'였다. 즉, 멘티와 자주 만날수록 '사회적 유능감(b=-.229, p<.001)', '자아탄력성(b=-.188, p<.01)', '인지적 유능감(b=-.144, p<.05)', '도덕적 유능감(b=-.139, p<.05)', '정서적 유능감(b=-.137, p<.05)', '자기효능감(b=-.117, p<.05)'에 있어서 멘토의 사후검사점수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멘티와 잦은 만남이 실제로 6개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멘토의 성장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6개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후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청소년일수록 멘티와 잦은 만남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분명한 것은 멘토링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멘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 1회 평균 멘토링 시간과 멘티-멘토 유사성 역시 어떠한 종속변수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3개월 간의 청소년 멘토링활동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멘티, 멘토에게 미치는 멘토링 효과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2차년도의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위한 주요 방향과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의 구조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멘티)을 대상으로 중·고·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교차연령또래멘토링(Cross-Age Peer Mentoring)이다. 특히,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한 후 멘토를 중·고·대학생 등 급별로 구분하여 총 6개 모델을 운영하였다.

둘째,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단체 가운데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기관담당자 및 결연관리자 워크숍 운영,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지침(안)제공, 8시간 이상의 멘토교육, 10회기 이상의 멘티·멘토 면대면 만남, 1인의 전담 결연관리자 배치, 외부 전문가 등 수퍼바이저 배치, 20팀 이상의 멘티·멘토 팀 운영 등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역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시범사업 운영기관 외에 지역아동센터와 중·고등학교가 연계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멘티 선정 및 장소 제공을, 학교는 홍보, 멘토 선발과 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번 시범사업에 최소 2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의 상호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멘티 뿐 아니라 멘토를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멘티, 멘토집단과 이들 각각의 비교집단을 운영하였다. 멘티의 경우 절망감, 외로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 학교와의 연계성에 있어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검토하였다. 멘토의 경우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의미하는 15개 특성(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 인지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도덕적 유능감, 정서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력, 친사회적 규범,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삶의 충만감, 유대감, 친사회적 참여)에 있어서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도출하였다.

1) 청소년 멘토링활동이 멘티에게 미치는 영향

(1) 멘티집단과 비교집단 차이 검증

멘티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멘티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공분산분석과 차이검증을 시도하였다. 먼저, 멘토링활동 이후 절망감, 외로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 학교와의 연계성 등 7개 항목에서 멘티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멘티집단과 비교집단을 성별, 도·농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멘티와 농촌지역 멘티의 경우 외로움 항목에서 비교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즉,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 남자멘티의 경우 멘토링활동 이후 비교집단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낮아졌으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남자멘티는 멘토링활동 이후 외로움의 정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멘티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결국 멘토링이 멘티의 외로움이라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원래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는 멘티의 경우 멘토링을 종결하더라도 외로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 정도가 큰 멘티는 종결 이후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므로 섣부른 개입과 종결이 결국에는 멘티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멘토링활동 이후 멘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의 변화를 8개의 진술문으로 질문한 결과 8개 항목 모두에서 긍정(매우 포함) 응답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이 더 밝아졌다', '더 많이 웃게 되었다', '나 자신이 더 좋아졌다', '학교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친구사이가 더 좋아졌다'의 경우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 10명 중 7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가족들과 더 잘 지내게 되었다'의 긍정 응답은 65.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긍정응답률을 보여 청소년 또래멘토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멘티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멘티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멘토링활동의 효과는 절망감,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외로움, 사회적 유능감, 부모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등 멘토링 효과와 관련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멘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멘토링활동의 효과는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멘토링활동의 유용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멘티의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멘티의 경우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검토한 결과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은 멘토링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7개의 종속변수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은 멘티의 절망감과 외로움은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 적응, 학교와의 연계성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 원조에 대한 멘티 만족도'는 절망감과 외로움을 제외한 5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멘티-멘토 유사성'은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관계를, '멘토와의 관계에 대한 멘티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상관관계를, 절망감 및 외로움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멘토링 빈도'의 경우 3개의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관계의 방향성은 다른 영향요인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즉, 멘토링 빈도가 많아질수록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 빈도가 많을수록 멘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편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멘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존감,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은 멘티의 경우 멘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잦은 빈도로 만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외 '멘토와의 관계지속을 희망하는 정도'와 '1회 평균 멘토링 시간'은 어떤 종속변수와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 멘토링활동에서는 멘토링 횟수나 만나는 시간과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는 멘토의 진정성과 같은 관계적 요인이 멘토링활동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멘토가 멘티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멘티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에 초점을 둔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멘티가 멘토링활동에 만족할 때 다양하고 긍정적인 멘토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멘티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활동 만족도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청소년 멘토링활동이 멘토에게 미치는 영향

(1) 멘토집단과 비교집단 차이 검증

멘토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멘토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공분산분석과 차이검증, 그리고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즉, 멘토링활동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 먼저, 멘토집단의 경우 멘토링활동 이후 멘토링 효과와 관련된 15개 종속변수 가운데 12개 항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량 자체는 비교집단이 오히려 큰 경우도 발견되어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멘토집단은 멘토링활동 이후 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삶의 충만감, 친사회적 참여 등 8개 항목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단, 멘토의 사전검사점수가 낮고 높음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 정도에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사전검사점수가 낮은 멘토는 비교집단에 비해 사후검사점수가 낮았고, 사전검사점수가 중간정도(3-4점)에 이르면 두 집단의 사후검사점수는 동일해지며, 사전검사점수가 높아질수록 멘토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점수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 멘토에게 동일하게 멘토링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멘토링활동 이전에 이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멘토링활동을 통해 자신의 좋은 특성을 더욱 향상시키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멘토로서 멘토링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멘토집단과 비교집단을 성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력,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친사회적 참여 등 7개 항목에서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탄력성, 삶의 충만감, 친사회적 참여 등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멘토링활동의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볼 때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집단과 비교집단 청소년을 (대)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 멘토의 경우 15개 종속변수 가운데 11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전검사점수가 높은 멘토는 멘토링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농촌지역 멘토의 경우 4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참여의 경우 비교집단은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사후검사점수가 낮아진 반면 멘토집단은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사후검사점수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멘토링활동이 멘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친사회적 규범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비교집단 청소년들은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사후검사점수가 높았던 반면 멘토집단은 사전검사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사후검사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측정 문항의 내용 즉, '우리사회의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친사회적 규범 정도가 낮았던 청소년은 멘토로 활동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나, 친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처음부터 높았던 청소년은 멘토링활동을 통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이와 같은 욕구가 다소 낮아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봉사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전검사 점수가 높았던 청소년의 경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다소 낭만적으로 혹은 당위적으로 접근하였으나 멘토링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활동이 적지 않은 자기 노력과 자기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자기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른 멘토링효과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멘토에게 미치는 멘토링 효과는 지역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멘토링활동 이후 주관적으로 느끼는 변화를 8개의 진술문으로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60% 이상의 동의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세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행위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의 경우 10명 가운데 8명 정도의 멘토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반면,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학교생활을 더 성실히 하고 있다'의 경우 각각 59.2%, 61.9%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즉, '행동적인 영역'에 비해 '인식의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였으며, 멘토로 참여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멘토링활동이 자기 자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키고 사회성을 증대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행동상의 변화도 일부 가능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멘토링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인 평가가 실제 프로그램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5개 종속변수 모두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사후검사에서 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 인지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도덕적 유능감, 정서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력, 친사회적 규범,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 삶의 충만감, 유대감, 친사회적 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멘토링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인 판단과 보고는 사전-사후검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멘토링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단순한 만족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멘토링활동에 대한 효과성 측정도구를 제작함에 있어 큰 함의를 지닌다. 즉, '성장'에 목표를 두는 멘토링활동의 특성상 측정도구는 다차원적인 항목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나, 멘토링효과에 대한 멘토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도 멘토의 긍정적인 변화를 상당부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멘토의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멘토의 경우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검토한 결과 '멘토로서의 자질'은 사회적 유능감을 포함하여 멘토에 대한 멘토링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5개 종속변수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멘토로서 멘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인식을 가진 청소년 멘토의 경우 가장 다양하게 멘토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멘토로서 자기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멘토링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결과라 하겠다.

두 번째로 주목할 영향 요인은 '멘토에 대한 멘티의 태도'로 자아탄력성을 포함한 13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멘티가 멘토에게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멘토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등 멘토가 멘티의 태도를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멘토링활동이 멘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멘토링활동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식의 봉사활동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멘토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경험하고, 멘토교육을 이수한 시간이 많을수록 멘토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멘토링활동 이전에 멘토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충분한 사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멘토로 하여금 자기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다. '멘티와의 관계지속에 대한 희망정도'는 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 도덕적 유능감, 친사회적 규범, 삶의 충만감, 유대감, 친사회적 참여와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과의 의사소통 빈도'나 '멘토로서의 경험 유무'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정도가 제한적이었다. 전자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만 유의한 관계에 있었고, 후자는 인지적 유능감 및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인정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었으나 관계의 방향이 모두 '음'의 방향이었다. 즉, 기관과의 의사소통 빈도나 멘토로서의 경험은 적어도 청소년에 있어서는 멘토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주요 요인이라 보기 어렵고 청소년 멘토로 활동한 경험이 있더라도 멘토의 경험과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효과성과 부적관계를 보이는 또 다른 영향 요인은 '멘토링 빈도' 였다. 즉, 멘티와 자주 만날수록 (사회적, 인지적, 도덕적)유능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멘토의 사후검사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멘티와 잦은 만남이 실제로 멘토에게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는 시련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6개 특성과 관련하여 사후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청소년일수록 멘티와 자주 만남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분명한 것은 멘토링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청소년 멘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 1회 평균 멘토링 시간과 멘티-멘토 유사성 역시 어떠한 종속변수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멘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멘토 역시 멘토링활동의 빈도와 시간이 많을수록 멘토링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특히, 성격, 장래희망, 좋아하는 활동 등 멘티-멘토의 유사성 정도와 멘토링 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즉, 비슷한 성향을 가진 멘티와 멘토의 결연 자체가 멘토링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멘토가 멘토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멘티, 멘토가 멘토링활동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획이 이루어질 때 멘토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청소년 멘토링활동 진행과정 및 결과

시범사업 관계자 집단 인터뷰, 참여관찰에서 작성한 필드노트,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보고서와 멘티, 멘토의 활동일지 및 소감문 등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멘토링활동은 청소년에게 분명 기존의 봉사활동과는 차별화 되는 유익한 활동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당수 멘토가 시작단계에서는 '멘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컸고,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도 있었지만 '인격적인 성숙'의 기회가 된 데 대해 감사한다는 표현이 곳곳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일부 청소년의 경우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멘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지 혹은 멘토의 자질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소년 또래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멘토링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멘토교육과 수퍼비전, 그리고 활동 내용 전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14]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8시간 이상의 멘토교육, 10회 이상의 멘티 · 멘토 만남, 1명의 전담 결연관리자 배치 등의 사항 외에는 시범사업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내 가용자원의 여부와 기관의 역량에 따라 활동내용과 진행 방법에 있어 많은 편차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효과적인 멘토링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기관과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14) 이와 함께 멘토링 진행과정을 평가한 결과 먼저, 멘티 · 멘토의 모집과 선발단계에서는 멘티의 욕구를 감안하여 멘토를 매칭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멘티 · 멘토 풀(pool)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진행된 만큼 선발과 멘티 · 멘토 사전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기관 간에 역할분담과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1) 멘토링 내용과 형식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분석 결과 멘토링활동이 멘토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청소년 멘토의 연령 즉, 중・고・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의 경우 '긍정적 인정'의 경우에만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고등학생은 사전검사점수가 높은 청소년은 사후검사점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전검사점수가 낮은 청소년의 사후검사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나는 등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멘토링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 대부분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활동 기간이 3개월로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멘토로서의 멘토링활동보다는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학습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멘토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조화된 내용 속에서 교육과 수퍼비전을 강화하여 '멘토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 과정을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멘토 자질'과 관련한 덕목을 어느 정도 습득한 이후 멘토링활동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멘토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멘토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내용과 형식은 차별화가 필요하다. 멘토링의 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멘토링활동과 수퍼비전을 병행하면서 또래멘토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것이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실제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고등학생은 멘토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앞서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생애적인 관점에서 차별화된 멘토링 전략을 채택한다면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모델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 청소년 멘토링활동 참여 모델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참여형태	학습 중심	학습+활동	활동 중심
참여목적	멘토 역할연습	멘토자질 함양, 상호적 발달	상호적 발달
효과측정	멘토의 성장(변화)	멘티, 멘토의 상호적 발달	

2) 멘토 선발 과정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춘 멘토의 선발(screening)을 지적하고 있다(DuBois, Holloway, Valentine, and Cooper, 2002; Foster, 2000).

좋은 자질을 가진 멘토 선발의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멘티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멘토링 관계를 고려할 때 멘토는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멘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멘토의 부적절한 특성은 아동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멘티가 멘토의 흡연,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을 학습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분석 결과 '멘토로서의 자질'은 멘토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역에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인지・정서・행동면에서 좋은 특성을 가진 청소년은 멘토링활동을 통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은 멘티의 절망감과 외로움을 줄이고,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셋째, 멘토링 효과가 모든 멘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멘토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을 때 멘토링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멘토링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내실 있고 충분한 멘토교육이 필요하다

멘토의 자질을 갖춘 청소년을 멘토로 선발하는 것에 앞서 멘토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자질을 떠나 내실 있고 충분한 멘토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에게 있어 멘토링활동은 봉사학습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볼 때 자질을 문제로 배제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멘토로 '투입'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멘티에 대한 이해, 멘티・멘토의 역할, 위기개입 등 멘토교육 내용이 다양하고, 멘토교육에 투입한 시간이 많을수록 멘토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멘토의 효능감은 자신 뿐 아니라 멘티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Dubois와 그의 동료들(2002) 역시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로 '멘토에 대한 교육'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성인 멘토와 같이 청소년 멘토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내실 있고 충분한 멘토교육이 선행될 때 멘토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멘티를 위한 사전 교육 역시 필요하다

멘토링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멘토가 멘티에게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멘티 역시 멘토에

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멘토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때 멘토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멘티가 멘토와의 약속을 지키고, 멘토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멘토가 지각하는 멘티의 태도가 자아정체감을 비롯하여 긍정적인 발달산물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멘티의 태도가 멘토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멘티가 멘토의 지원을 적극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배운다면 멘토링활동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Karcher, 2007). 따라서, 멘티에게도 멘토링의 의미와 목적, 멘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사전교육을 제공한다면 멘티 뿐 아니라 멘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멘티-멘토의 매칭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멘티, 멘토의 매칭이 멘토링 효과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적절한 매칭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데 동의한다(Foster, 2000).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멘티가 멘토와 자신이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멘토링활동 이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세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물론 사전검사점수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한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외로움 정도가 평균 이상이었던 농촌지역의 멘티와 남자 멘티의 경우 멘토링활동 종결 이후 비교집단 아동에 비해서도 외로움의 예측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단 외로움 뿐 아니라 특별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멘티의 경우 자칫 멘토링이 섣부른 개입과 종결로 끝날 경우 오히려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멘티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 · 정서 · 행동적으로 취약성이 있거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이라면 이러한 욕구를 일부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매칭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멘티, 멘토 풀(pool)을 구축한다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사전에 구축된 멘토 풀(pool)은 멘토의 즉각적인 수급과 효과적인 매칭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멘티와 멘토 중 누구를 먼저 모집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청소년 멘토링활동에서는 멘토를 먼저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멘토의 모집과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질있는 멘토를 양성하여 멘토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매칭 과정에서 멘티의 욕구와 성향을 고려하여 멘토를 결정하도록 한다. 만약, 멘토보다 멘티가 먼저 확보된 경우라면 멘티의 욕구와 특성을 먼저 충분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멘토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정의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멘티, 멘토만을 결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전담인력인 결연관리자 양성이 요구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기관별로 1인의 결연관리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였다. 결연관리자는 멘티, 멘토의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20팀 내외의 멘티, 멘토의 활동 내용과 멘토링관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채용한 결연관리자 가운데 멘토링 경험과 이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결연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사전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전담하는 결연관리자의 양성 과정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결연관리자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만큼 1인당 최대 30팀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퍼비전이 필요하다

멘토링은 멘티, 멘토 둘 간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멘티, 멘토 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또한 멘토링이다. 즉, 멘토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멘토링관계'가 발전하고 멘티, 멘토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를 이끌어주는 수퍼바이저가 인적 구성요소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비롯하여 수퍼바이저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은 운영기관 담당자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성인-아동 간 멘토링일 때보다 청소년 멘토링에서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Small, 2008). 따라서, 활동 모니터링과 사례(case)의 진행과정에 따른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퍼비전은 활동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활동 모니터링에서는 멘티, 멘토의 만족도와 멘토링 관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재적소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9) 멘토링활동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멘티, 멘토가 관계를 형성하고 멘토링활동이 멘티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만남에 그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발견되지 않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Jekielek, Moore, Hair and Scarupa, 2002). 이는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에서 멘티의 경우 두드러진 멘토링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 하겠다. 즉,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아닌 짧은 기간으로 인해 멘티차원의 효과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인식의 변화에 비해 행동적 차원의 변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요한다(Kellogg Foundation, 2004; Taylor-Powell and Henert, 2008). 이 연구에서도 역시 멘토링활동 이후 멘토들은 행동적인 영역에 비해 인식영역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멘토링활동이 진정한 봉사학습으로서 청소년의 인지, 행동적인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10) 활동내용 및 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가 요구된다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멘티, 멘토가 작성한 활동일지에는 활동시간 뿐 아니라 활동내용과 과정,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함께 기록하도록 하였다. 향후 멘토링활동을 관리·확인하는 사업 운영기관은 멘토링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합한 활동기록이 될 수 있도록 기록에 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11) 운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멘토링활동 운영기관의 특성을 분석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활동 운영기관은 멘티, 멘토 뿐 아니라 활동내용의 기획과 운영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멘티, 멘토의 만족도와 멘토링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기관을 확보하고 기관차원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래(1993). 학업성취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20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소연(2010). 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결과 분석.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워크숍.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2010).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평가 보고서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0).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평가 보고서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0).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평가 보고서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달재수련원(2010).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평가 보고서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화성시자원봉사센터(2010).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평가 보고서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BBS경상북도연맹(2010).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평가 보고서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sher, S., Hymel, S., and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pp.1466-1464.
- Blue, D.(2004). Adolescent mentoring. Study of High School Restructuring Issue Brief 2(3).
- Cassidy, J., and Asher, S.(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pp.350-365.
- Developmental Studies Center(2000). Scales from student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Projec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pp. 9.), 2010년 6월 11일 조회 http://www.devstu.org/sites/default/files/media/pdfs/cdp/DSC_ElemSch_scales.pdf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71-75.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Phillips, R. S. C., and Lease, M. A. (1996).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 developmental-ecological framework and assessment strateg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 6(4), pp.543-579.
- DuBois, D. L., Holloway, B. E., Valentine, J. C., Cooper, H.(2002).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s for Youth: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2), pp.157-197.
- Foster, L.(2000). Effectiveness of mentor programs: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1995 to 2000 (CRB-01-004). CA, USA: California Research Bureau.

- Garringer, M., and MacRae, P.(2008). Building effective peer mentoring programs in schools : An introductory guide. CA: Mentoring Resource Center.
- Jekielek, S. M., Moore, K. A., Hair, E. C., and Scarupa, H. J.(2002, February). Mentoring: A promising strategy for youth development. Trends Child Research Brief.
- Joel, F. and Kevin, C.(1987).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 Couples, Families, and Children (A source book Vol. 1). (4th ed.). (pp.477-478).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Karcher, M. J.(2005). Manual for scoring and interpretation for The Hemingway: Measure of Adolescent Connectedness.
- Karcher, M. J.(2007). Cross-age mentoring. Alexandria, VA: MENTOR/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 Karcher, M. J., and Lee, Y.(2002). Connectedness among Taiwanese middle school students: A validation study of the Hemingway Measure of Adolescent Connectedness. Asia Pacific Education, 3(1), pp.92-114
- Kazadin, A. E., French, N. H., Unis, A. S., Esveldt-Dawson, K and Sherick, R. B.(198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pp.504-510.
- Kellogg Foundation(2004, January). Using logic models to bring together planning, evaluation, and action: Logic model development guide. Battle Creek: Michigan: Author.
- Rhodes, J., Reddy, R., Roffman, J., and Grossman, J. B.(2005). Promoting successful youth mentoring relationships: A preliminary screening questionnaire.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2), pp.147-167.
- Search Institute.(2005). Search Institute profiles of student life: Attitudes and behavior. http://www.search-institute.org
- Shek, D. T. L., Siu, A. M. H., and Lee, T. Y.(2007). The Chinese Positive Youth Development Scale: A validation stud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3), pp.380-391.
- Shek, D. T. L., and Ma, C. M. S.(2009). Dimensionality of the Chinese Positive Youth Development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Electronic ver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
- Small, S. A.(2008, January). What research tells us about effective youth mentoring programs (Wisconsin Fact Sheet). University of Wisconsin Extension
- Sprito, A., Williams, C. A., Stark, L. J., and Hart, K. J.(1988). The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Psychometric properties with normal and emotionally disturbe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4), pp.445-458.
- Taylor-Powell, E., and Henert, E.(2008, February). Developing a logic model: Teaching and training guide.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자문진

가나다순

김명화 KYC한국청년연합 간사

류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류재윤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박현선 세종대학교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홍식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홍식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유홍식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윤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혜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기헌·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헌·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수시과제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스포츠활동」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용역과제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헌·김형주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0-s01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10-s05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군 정량지표- (6/29)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10-s14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Ⅰ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

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헌·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원장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02-725-5216)

ISBN 978-89-7816-898-4 (93330)
978-89-7816-895-3 (93330) (세트)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